



JCI 인증의료기관 보건복지부 인증의료기관

2017 0910

Vol. 125

Be Healthy, Be Happy

# 인하대병원

Health Focus\_ 귀! 코! 목! 이비인후과 Health Touch\_ 초음파 vs CT vs MRI Special People\_ 바위꾼 클라이머 권영세 INHA Focus\_ 제2회 생명존중 콘서트





18



26



30

# 인하대병원

Sept

+

Oct 2017 Vol.125

모바일 홈페이지에서도  
인하대병원을 만나실 수 있습니다.



## 건강 한 걸음

- 04 | Health Focus | **귀! 코! 목! 이비인후과**
- 05 **메디컬 인터뷰** 김규성 교수 / 이비인후과 과장
- 08 **두경부암** 먹고! 숨 쉬고! 말하느! 까다로운 곳
- 10 **타액선 질환** 별별 곳의 돌, 침샘에도...
- 12 **코골이와 편도선염** 통증 적은 무통편도수술
- 14 **난청과 보청기** 시기 놓친 보청기, 실명 후 안경 끼는 것
- 16 **코질환** 사랑의 방해꾼! 코 질환 삼총사
- 18 **Health Touch** 초음파 vs CT vs MRI

## 사랑 두 걸음

- 20 **어디까지 가봤니** 인천 골목이 품은 이야기 15 - 전동
- 24 **Special People** 로맨티스트 바위꾼 클라이머 권영세
- 26 **INHA Post** 바다 위 종합병원 '병원선'

## 나눔 세 걸음

- 28 **Change the INHA** 환자가 이야기하는 인하대병원
- 30 **INHA Focus** 세계자살예방의 날 기념 '제2회 생명존중 콘서트'
- 32 **인하심포** 방사선 종양학과 대부도 의료봉사
- 34 **톡톡 약물상담** 편두통 치료제, 적응증에 맞는 약물 복용
- 35 **병원 탐방** 세인트요양병원 전현양·구지희 병원장

## INHA NEWS

- 36 **병원소식** 인하대병원 소식
- 39 **Info Desk** 언론에 비친 인하대병원, 건강교실, 공개강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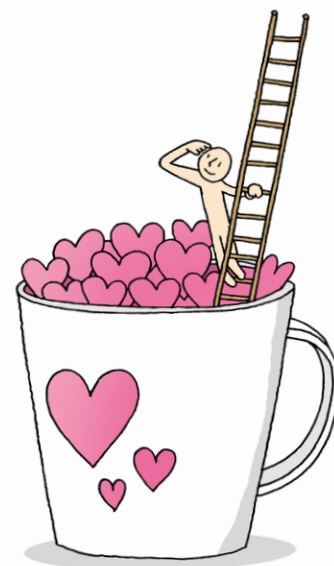
# 걱정하지 마라

웃었던  
날들을 모으면  
행복이 되고

좋아했던  
날들을 모으면  
사랑이 되고

노력했던  
날들을 모으면  
꿈이 된다

가지지 못해  
부족하다 느끼기엔 우리는  
앞으로 모을 수 있는 날들이 너무 많다



글배우 | '걱정하지 마라' 중에서 | 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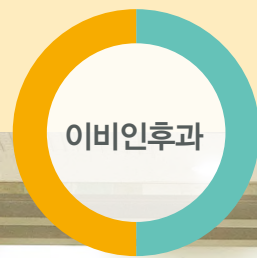
표지\_ 이비인후과 의료진

# Otorhinolaryngology

## 일사불란, 하나된 팀워크로 이비인후과를 이끈다!

외부와 소통시켜주고 생명을 유지하며  
사회활동을 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하는 귀! 코! 목!  
일상과 가장 밀접하고 예민한 좁고 복잡한 곳을  
매일 세심하게 치료하는 이비인후과.

어쩌면 쉬운 말로 자신감을 주는지 모르지만,  
또 가벼운 말에 상처라도 받을까 소소한 배려도 아끼지 않는  
이비인후과 의료진을 만나본다.



## 김규성 교수

이비인후과 과장

### 귀! 기울이고, 목소리 잘 듣는!! 환자의 아픔에 대한 '측은지심'으로 소통

환자에게 보이는 모든 것이  
'의술의 출발'이라고 생각하는  
김규성 교수를 만났다.  
따뜻한 진료 마인드와 냉정한 판단의  
조화, 그리고 의료진의 화기에애한  
분위기까지 환자에게 신뢰를 주는  
요소라면 작은 것도 놓치지 않는  
그의 섬세한 온도가 느껴지는  
시간이다.

글\_ 이정희 에디터  
사진\_ 송인혁 실장 / 다뷰스튜디오

**Profile.** 김규성 교수는 1990년 인하대학교 의과대학을 졸업하고 인하대학교 의과대학 임상강사, 전임강사를 거쳐 현재 인하대학교 의과대학 이비인후과 교수로 재직하고 있다. 2005년도 일본 도쿠시마 의과대학, 2006년 미국 존스홉킨스 의과대학에서 교환 교수로 연구 활동을 하였다. 주 진료 및 연구분야는 어지럼, 전정평형계 및 청각계 질환, 항공우주의학 등이다.



### 작은 곳곳을 살살이 뒤져야 하는 격한(?)과, 이비인후과

“이비인후과는 사실 굉장히 격한 과입니다. 보통 외래를 생각하면 ‘칙칙’ 뿌리고 약 발라주면 끝나는 것으로 보기 쉽죠. 아마 인턴 시절 제일 먼저 일어나고 가장 늦게 끝나면서, 또 가장 짧은 시간부터 하루를 넘기는 긴 수술까지, 만만치 않은 시간을 버텨야 합니다.”

좁은 부위에서 생명을 두고 한판 승부를 두어야 하는 치열함 때문에 작은 실수조차 용납되지 않는다고 김규성 교수는 첫마디를 건넵니다. 그렇게 넘치는 격한 끼(?)를 주체하지 못하고 음주를 하더라도 새벽 7시에는 칼같이 콘퍼런스 하는 옛 추억(?)도 고백한다. 김현지·김지원 교수가 합류하면서 과 분위기가 많이 바뀌었다. 육아와 가정을 위한 배려이기도 하지만 환자 진료, 수술은 물론 임상활동까지 하려면 시간을 효율적으로 써야 한다는 김 교수다.

### 복잡하고 예민!! 손대기 쉽지 않은 두경부암 수술 드림팀

귀 둘, 코 둘, 목구멍 이렇게 우리 몸의 작은 구멍 다섯 개를 진료하는 이비인후과, 그래서 우스갯말로 5공 수사대라고 부르기도 한다.

그런데 그 작은 5공은 복잡하고 예민해서 잠시라도 통(通)하지 않으면 불편하고 생명을 잃기도 한다.

응급의학과와 발전 이전에는 기도가 갑자기 막힌 환자의 ‘기관절개술’ 등 초응급에서 이비인후과의 활약이 컸다고 김 교수는 회상한다.

“이비인후과는 복잡하고, 예민한 기관을 진료해요. 후두, 갑상선 포함 목 위, 머리 아래가 두경부이고, 그곳에 생긴 암을 ‘두경부암’이라고 합니다. 먹고 말하고 숨 쉬는 기능과 감정표현을 하는 민감한 곳인 만큼 환자를 위한 최선의 선택에서 많은 고민을 하게 되죠. 우리 최정석·김지원 교수가 아주 잘해주고 있어요.” 수술을 잘한다는 의미는 병변 제거만 잘 하는 것이 아니라 그거를 넘어서, 그러니까 목에 문제가 생겼다면 그 부위 전체를 능숙하게 대처할 수 있는 능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한다.

“모든 병은 거기서만 끝나는 것이 아니거든요. 귀를 통해서 보는 청신경종양의 경우 신경외과랑 겹쳐요. 이비인후과 의사가 잘 접근할 수 있는 곳이 있고, 뇌를 열고 들어가는 경우라면 신경외과가 아주 잘 하거든요. 물론 협진으로 함께 수술하기도 하죠.” 언제나 환자에게 집중해야 하는 것은 치료의 기본이라고 강조하는 김 교수다.

### 환자 치료를 위해서라면 무엇이든 적극 제기하는 의료진

또, 이비인후과 모든 의료진은 연구비를 확보하고 임상연구도 열심히 하고 있다. 이는 환자를 보는 의사가 필드에서 필요한 치료약을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먼저 요구할 수 있는 근거를 연구하는 작업도 중요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최정석·김지원 교수는 침샘 관련 연구를 활발히 하고 있는데 우리 병원의 타액선 내시경은 국내 초기부터 시작한 분야여서 케이스가 많다. 김영효 교수는 알레르기 과민성 비염 분야를, 김현지 교수는 항공의학 분야의 우주 멀미, 그리고 김규성 교수는 전장기관 분야와 관련한 연구를 활발히 진행하고 있다.

“우주에 몇 명이나 간다고 우주멀미까지 하느냐고 생각할 수 있는데 의사가 하는 일이라는 게 거기서 원리를 찾고 그것을 땅에서 적용하는 거죠. 우주에서 발생하는 새로운 원리를 찾으면 그것을 지상에서 활용한다는 데 의미가 있어요.”

대한항공과 계열사이고 모교에 항공우주공학과의 있는 우리 병원이 항공의학을 연구하는 것은 자연스러운 일이라고 덧붙인다.

지난 9월, '교실발전을 위한 모임'을 다녀온 이비인후과 의료진과 골도이식형 보청기인 bonebridge의 국내 최초 수술 장면



### “인하대병원에 대한 소속감으로

그들과 경쟁을 하는 모습, 그래서 탄탄하게 잘 닦아 놓은 인하대병원 이비인후과 위상을 유지하고 발전시키는 것이 목표라고 김 교수는 말한다.”

### 역지사지! 측은지심!

김 교수는 또, 외래 스태프에게 지나친 웃음은 자제해달라고 당부한다. 과 특성상 예민한 부위라서 조금만 아파도 많이 힘든 마음을 헤아리고 환자와 눈높이 맞추기를 했으면 하는 바람 때문 이란다. 사소한 것에서 오는 상처가 더 클 수 있다는 김 교수의 세심한 배려가 또 놀랍다.

“양치질, 간식 먹기, 담소 같은 일상의 소소함도 때론 환자에게 괴리된 느낌을 줄 수 있어요. 대학병원은 의사를 만나려면 접수부터 여러 단계를 거쳐야 하는데 이것도 환자에게 예민한 일이죠.”

보이지 않는 그 너머까지 환자와 공감하는 역지사지 마음으로 ‘측은지심’을 갖는 건 중요하다고 강조하는 그다.

그리고 의사임에도 불구하고 눈치 보는 환자였던 경험을 이어가는 그에게서 훈훈한 마음이 전해진다.

### 지금의 자리에서 소속감 느끼는 마인드 중요

인하의대 출신은 아니지만 소속감을 느낀 대표적인 분은 바로 이비인후과의 장태영 교수와 김영모 병원장이다. 세브란스 병원 출신이지만 인하대병원에 대한 소속감으로 그들과 경쟁을 하는 모습, 그렇게 탄탄하게 잘 닦아 놓은 인하대병원 이비인후과 위상을

유지하고 발전시키는 것이 목표라고 김 교수는 말한다.

“하버드 대학을 졸업했다 하더라도 지금 이 자리에서 잘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겁니다. 갖춰진 곳이 아닌 상황에서 난제를 헤쳐 나가는 능력에 따라 주저앉거나 불만세력으로 전락할 수 있죠.”

출신학교를 떠나 자신의 거처에 소속감을 느끼는 것은 대단히 중요한 일이라고 강조한 김영모 병원장의 조언을 다시 곱씹어 보며 화끈한 이비인후과의 팀워크를 뜨겁게 자랑한다.

김 교수는 대외적 활동으로 보청기 이용자의 건강보험 적용을 위해 애쓰고 있다. 현재는 청각장애 관정을 받아야 최대 131만 원까지 지원이 되는데, 현실적으로 장애 진단 후는 보청기 착용은 사실 의미 없는 경우가 많다. 시각장애인에게 안경을 낀다고 보이는 게 아닌 것처럼 청력이 남아 있어야 효과가 있는 것이다. 또, 안경 쓰면 박사님이라고 생각하지만 보청기 착용은 감추고 싶어 하는 인식 변화 필요성도 강조한다.

옆을 둘러볼 겨를 없이 앞만 보고 달리던 그는 건강의 위협이 크게 2번 오고 나서야 자신의 뒤를 돌아보게 되었지만, 그것이 의사로 살아가는 것에 대한 후회는 아니다.

세상에 안 바쁜 사람 없고, 자기일 안 힘든 사람 없다고 생각하는 그다. 그래서 아쉬운 부분이 있긴 하지만 다시 태어나도 ‘의사’로 살아가길 망설이지 않을 거라고 한다.

인하의대 수석 졸업생 두 명, 최정석·김영효 교수와 활달한 우먼 파워 김현지·김지원 교수, 그리고 전공의까지 김규성 교수와 함께, 처음 그 마음으로 오늘도 빛나고 싶다.

### MINI INTERVIEW

#### ‘인하 코 수술의 아버지’ 장태영 교수



후배 의사들보다 더 뜨거운 포즈로 나란히 서고, 다독이다!

#### 아버지 같은 묵묵함, 아름다운 열정의 길

후배 의사들 옆에서 묵묵히 지켜보며 진심으로 다독여주며 힘이 되어주는 장태영 교수가 있다. 장태영 교수는 모교와 같은 소속감으로 인하대병원과의 인연을 값진 ‘채움’으로 발전시켜주었다. 필요한 만큼의 간격을 두고 그 자리에서 관심으로 서 있는 아름다운 선배이고 스승의 모습이다. ‘우리 팔짱 한번 끼고 다정하게 짚어보자’는 제안과 함께 후배 의사들과 나란히 포즈를 취하며 열정을 보여준 장태영 교수, 그에게 후배 의사들은 모든 순간이 고맙지만, 오늘 더 그 마음을 전하고 싶다. 열정과 해안의 아름다운 흔적을 조용히 기억하며 또, ‘인하 코 수술의 아버지’로 가슴에 담아본다.

**Profile\_** 장태영 교수는 1979년 연세대학교 의과대학을 졸업하고 University of Pennsylvania 연구 강사를 거쳐 현재 인하대학교 의과대학 이비인후과 교수로 근무하고 있다. 전문치료분야는 부비동내시경 수술, 비중격 수술, 알레르기성 비염의 치료, 코골이/수면무호흡 등에 대한 치료 및 연구를 주로 하고 있으며, 특히 부비동내시경 수술 및 비중격 교정술 등에서 탁월한 수술 치료성적을 보이고 있다. 대한비과학회장, 대한안면성형재건학회장, 한국항공우주의학회장을 역임하였고, 비과 분야의 뛰어난 업적으로 세계3대 인명사전인 ‘마르퀴스 후즈후’에 등재되었다.

01

두경부암

최정석 교수

# 발생 빈도 증가하는 두경부암 먹고! 숨쉬고! 말하고! 매일 사용하는 까다로운 곳

얼마 전 유명 배우의 비인두암 투병 소식이 전해지면서 두경부암에 대한 관심이 크다. 비인두암은 머리와 목에서 발생하는 암인 두경부암 중의 하나이다. 두경부암은 주로 먹고 말하는 중요한 기관에 발생하기 때문에 암의 치료와 장기의 기능을 보존하는 전문적인 치료와 적극적인 재활이 필요한 분야이다.

글\_ 최정석 교수 / 이비인후과



“  
최정석 교수에게 이비인후과는...  
“숨”이다.

이비인후과를 품고 산다는 것은  
내게 공기를 들이마시고 내쉬는 숨처럼 아주 자연스러운  
일이며, 숨을 쉰다는 본연의 의미처럼 내게 살아서  
움직이고 활동하는 이유 중의 하나이기 때문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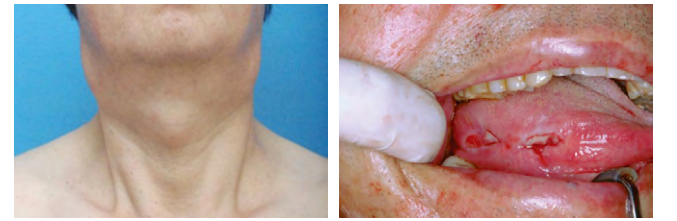
”  
감성은 기본적으로 시각·청각·후각·미각·촉각의  
오감(五感)으로부터 나온다.  
이비인후과는 이러한 오감의 건강을 책임지는  
의학 분야이니 현대사회를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가장  
친숙해져야 하는 분야임이 틀림없다고 생각한다.

### Profile

최정석 교수는 2002년 인하대학교 의과대학을 졸업하고 인하대병원 전임의를 거쳐 현재 인하대병원 이비인후과 조교수로 근무하고 있다. 전문 치료분야는 두경부, 소아이비인후과(편도 및 아데노이드, 중이염), 후두 및 음성, 침샘, 갑상선, 구강질환이며, 주요 연구분야는 후두 및 침샘 질환이다.

### 코, 성대, 타액선 등 머리와 목에 발생하는 종양

두경부암은 머리와 목에 발생하는 종양으로 인구의 고령화 및 환경오염 등으로 인해 발생빈도가 점점 증가하고 있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따르면 두경부암 환자의 수는 연평균 약 4%의 수준을 보이며 환자의 수는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두경부암은 코에 발생하는 종양인 비부비동암, 타액선에 발생하는 타액선암, 성대를 포함한 후두에 발생하는 후두암, 인두암, 구강암, 갑상선암 등이 있다.



경부에 혹이 만져지는 경우, 구강에 염증이거나 궤양이 잘 낫지 않는 경우 두경부암을 의심할 수 있다.

오랫동안 목소리가 변했을 때, 입안의 염증이나 궤양 및 부종이 지속이 될 때, 음식을 삼킬 때 통증이 지속될 때, 한쪽 코가 막히거나 입 냄새가 심하게 나는 경우, 피가 섞인 콧물이 동반될 때, 얼굴과 목, 또는 구강에 혹이 만져질 때 두경부암을 의심할 수 있으며 반드시 전문의 진료가 필요하다.

### 두경부암센터 개소, 6개 진료과와 다학제 진료

인하대병원은 증가하는 두경부암 환자의 수요를 충족하고 양질의 의료서비스 제공을 통해 환자들의 삶의 질을 높이고자 2015년 4월 경인지역 최초로 두경부암센터를 개소하여 본격적인 진료에 들어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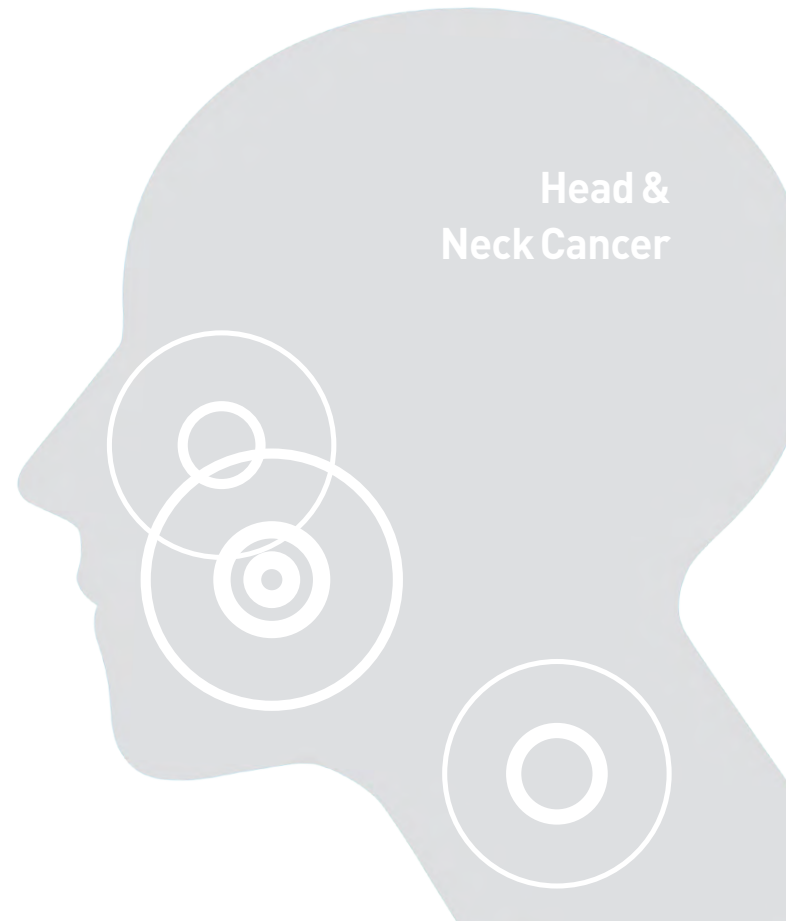
두경부암은 주로 먹고 말하는 중요한 기관에 발생하기 때문에 암의 치료와 장기의 기능을 보존하는 전문적인 치료와 적극적인 재활이 필요한 분야이다.

두경부는 생명유지에 매우 중요한 기능인 섭식, 발성, 호흡을 담당하는 중요한 기관이다. 그렇기 때문에 두경부암이 발병하게 되면 이러한 기능에 손상이 갈 수밖에 없으므로 기능 손상을 최소화하여 환자 삶의 질을 최대한 보존하기 위해 전문 의료진 간의 긴밀한 협진체계가 매우 중요하다.

두경부암센터는 두경부 영역에서 발생하는 암에 대한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진료를 선도하는 암센터로 6개 진료과와 10명의 전문 의료진에 의한 원스톱 다학제 진료시스템을 구축하고 있다.

또한, 정기적인 다학제 회의를 통해 빠르고 정확한 진단 및 환자 특성에 따른 맞춤형 치료를 시행하고 있다. 환자의 치료과정을 돕기 위해 전문적인 두경부암 전담간호사를 운영하고 있으며, 두경부암의 이해를 돕기 위해 정기적으로 환자 및 보호자에게 교육을 시행하고 있다.

**인식도가 낮은 두경부암, 조기 발견이 중요**  
인하대병원 이비인후과는 두경부암의 새로운 진단과 치료 및 합병증 예방에 관한 기초 및 임상 연구를 지속하여 두경부암 분야의 새로운 패러다임을 제시함은 물론 두경부암의 예방 및 조기진단을 위한 교육 및 홍보에도 중점을 두고 있다. 두경부암은 인식도가 낮기 때문에 예방 및 조기 발견이 매우 중요하다. 예방을 위해서는 금연이 필수적이며, 과도한 음주를 피해야 한다. 양치질과 가글을 통해 항상 구강점막을 청결이 하고, 건강한 성생활로 인유두종바이러스의 감염을 피해야 한다. 가장 중요한 것은 정기 검진인데, 40대 이상의 성인이라면 1년에 한번 정도는 두경부외과의 검진을 받는 것이 좋다.



# 02

## 타액선 질환

### Salivary Glands

# 별별 곳의 돌, 침샘에도... 얼굴에 상처 내지 않는 특화 치료

인하대병원 은 국내에서 유일하게 특화된 타액선 치료 클리닉을 운영하고 있으며, 타액선 내시경술을 받은 환자를 대상으로 지속적인 타액선관리와 평가를 통한 관리시스템을 적용하고 있다.

글\_ 최정석 교수 / 이비인후과

### 타액선 질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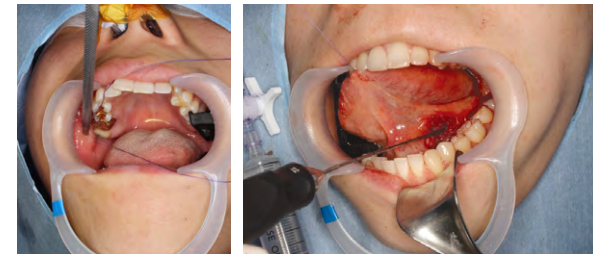
타액선은 타액(침)을 만드는 기관이다. 타액분비에 장애가 생기게 되면, 통증 이외에도 음식을 먹지 못하거나, 말을 하지 못하게 되는 현상이 생기며, 다양한 다른 질환으로 연결이 될 수도 있다. 이를 타액선 폐쇄성 질환이라고 하는데 이러한 원인은 바이러스나 세균의 감염 후염증, 종양(용종), 자가면역 질환, 타석(침샘의 돌) 등에 의해 생기게 된다. 주요 타액선은 귀밑이나 턱밑에 존재하므로 이 부위의 통증이 있거나 붓는 증상이 자주 발생하면 타액선 폐쇄성 질환을 의심해 볼 수 있다. 식사 후에 이러한 증상이 반복적으로 발생하는 경우, 타액선 질환 전문의를 찾아 상담받는 것이 좋다.

### 타액선 질환, 내시경으로 30분 만에 치료 끝

타석(침샘의 돌)이나 타액선 관의 용종, 염증으로 인한 협착과 같은 타액선 질환은 보존적 치료에 호전이 없는 경우 타액선을 제거하는 것이 과거의 유일한 치료방법이었다. 타액선 질환을 두려워하는 이유 중의 하나가 얼굴에 상처가 나는 수술에 대한 거부감 때문이다. 그러



인하대병원 이비인후과 의료진이 타액선에 생긴 병변을 내시경을 보며 치료하고 있다.



이하선과 악하선 개구부 확장과 내시경의 삽입 장면. 입안을 통한 시술로 얼굴에 상처가 나지 않는다.

나 과거 전신마취 및 긴 회복기간을 필요로 하는 기존 수술과 달리 최근 최소 침습법으로 타액선 질환을 치료하는 타액선 내시경술이 큰 효과를 보고 있다. 수술의 범위가 크며, 입원 및 회복 기간이 길고, 얼굴에 흉터가 남는 기존의 타액선 절제술과 달리 타액선 내시경술은 입안을 통한 최소한의 절개로 얼굴에 흉터가 나지 않으며, 수술 후 생길 수 있는 합병증의 가능성을 줄일 수 있다. 보통 타액선 절제술을 하는 경우 4-5일 정도 걸리는 입원 기간을 1-2일로 줄일 수 있어 바로 일상생활로 복귀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또한, 타액선 내시경술은 침샘의 기능을 보존하면서 타액선 질환을 정확히 진단하고 치료할 수 있는 기능 보존적 술기인 동시에, 환자의 얼굴에 상처를 내지 않는 미용학적으로도 우수한 치료법이다.

### 최소침습 시술받으면 당일 퇴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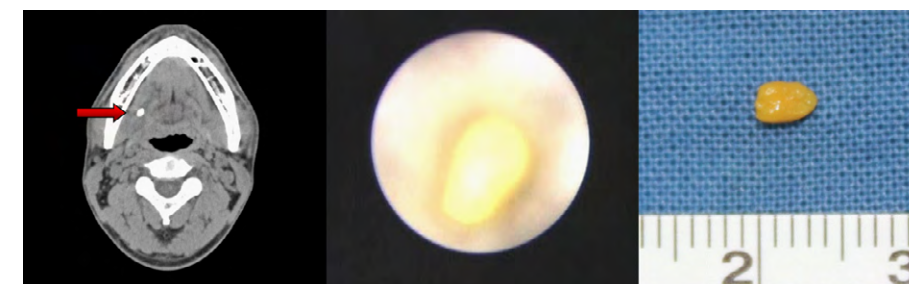
타액선 내시경술은 시술 시간과 회복기간이 일반 수술과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짧다. 기존 타액선 수술을 하려면 얼굴을 절개한 뒤 타액선을 직접 제거하거나 절개를 하여야 하며, 이런 시술은

보통 회복까지 일주일 정도가 소요된다. 반면 타액선 내시경술은 직경 1~2mm 정도의 내시경이 타액선 관을 통해 들어가 확대된 화면을 직접 보면서 시술한다. 타액선 내시경은 당일 퇴원도 가능하며, 퇴원 후에도 일상생활에 전혀 지장이 없다.

타액선 질환으로 인한 통증이나 타액선의 불편감, 빠르게는 시술이 끝나자마자 통증이 없어지기도 하며, 만성 환자라도 수술 내에 통증에서 벗어날 수 있다. 치료법이 워낙 간단하다 보니 전신마취가 어려운 환자도 시술받을 수 있다. 그래서 우리 병원의 타액선 내시경 환자들은 다른 병원에서 타액선 절제술 등 수술을 권유받았던 환자들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 인하대병원 이비인후과, 특화된 타액선 치료 클리닉

타액선 치료는 수술뿐 아니라 사후 관리도 중요하다. 인하대병원은 국내에서 유일하게 특화된 타액선 치료 클리닉을 운영하고 있으며, 타액선 내시경술을 받은 환자를 대상으로 지속적인 타액선 관리와 평가를 통한 관리시스템을 적용하고 있다. 이는 국내에서 독보적인 타액선 관리 프로그램으로 시술 이후 환자의 빠른 회복과 재발 방지, 치료의 완성도를 높이기 위해 시행하고 있다.



CT상 보이는 타석(왼쪽), 타액선 내시경을 통해 보이는 타석(가운데), 내시경술로 제거된 타석(오른쪽)

03

코골이·편도선염

김지원  
교수



Profile

김지원 교수는 2009년 경희대학교 의과대학을 졸업하고 서울아산병원 두경부외과 임상강사를 거쳐 현재 인하대병원 이비인후과 임상조교수로 재직 중이다. 전문 치료분야는 피타 편도수술(무통 편도수술), 소아 이비인후과, 갑상선 및 두경부 종양, 구강 및 타액선 질환, 후두 및 음성질환, 연하장애이다.

# 아이의 코골이, 무호흡 수술 망설이던 엄마에게 통증 적은 무통편도수술

숨을 쉬고 음식을 삼킬 때 사용하는 인두, 아름다운 목소리를 내는 후두, 맛을 느끼는 혀, 윤향제 공장 침샘과 에너지 호르몬 공장 갑상선 등이 모여 있는 두경부. 그중 성장발육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편도와 아데노이드 수술법에 대하여 알아보자.

글\_ 김지원 교수 / 이비인후과

“  
김지원 교수에게 이비인후과는...  
“달콤 씹싸름한 커피”이다.  
두경부 환자의 특성상 언제든지 호흡에 문제가 생길 수 있으므로 24시간 핸드폰이 대기하며, 나를 깨어있게 하는 것. 하지만 커피처럼 그 향기와 달콤 씹싸름함, 각성효과 때문에 끊을 수 없는 것!  
”

### 편도는 우리 몸 구인두에 위치하는 입파조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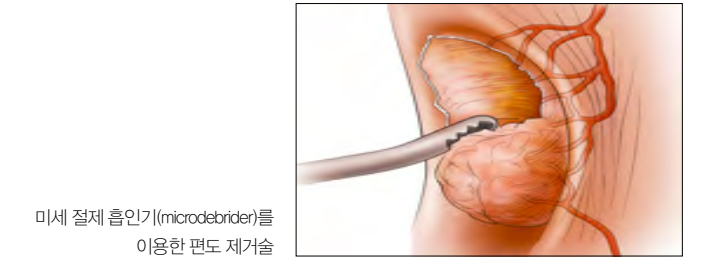
일반적으로 편도선과 아데노이드는 출생 시기에는 크기가 매우 작으나 1~4세까지 면역작용이 증가하면서 점차 커져서 사춘기까지 편도비대가 진행할 수 있고, 그 이후에는 서서히 퇴화하기 시작한다. 그러나 사춘기 전까지 아데노이드와 편도의 비대가 심한 경우에는 코골이, 수면무호흡증이 발생할 수 있다. 이는 수면 장애를 유발하고 낮 활동에 지장을 미쳐, 집중력 장애 등의 문제로 이어진다. 더 큰 문제는 성장기 아이들은 충분한 수면을 통해 밤 동안 성장 호르몬이 분비되게 되는

데, 성장 호르몬 분비가 줄어들면서 성장발육에도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따르면 만 4세에서 12세까지의 소아 환자의 경우 약 10% 정도가 편도와 아데노이드 비대로 코를 골게 되며 이 중에서 40%의 경우에는 수면무호흡증도 가진 것으로 알려져 있다. 또한, 코고는 증상이 없더라도 소아가 잘 때 입을 벌리거나 식은땀을 흘리거나 자주 잠을 깨고 숙면을 취하지 못하는 경우는 수면무호흡증을 의심하고 전문의 검진을 받아보는 것이 필요하다. 또한, 편도선염의 경우, 목감기 후 비대해지면서 전신 열, 몸살 반응, 목 통증을 동반하고 심하면 편도주위농양으로 확대되는 경우도 있다. 이러한 여러 가지 문제를 일으킬 수 있는 편도와 아데노이드 비대증의 치료는 “절제술”이다.

기존 편도 절제술	피타 수술
• 수술 후 출혈 가능성 높음	• 수술 후 출혈 가능성 적음
• 편도의 피막 주위 근육층 손상 유발	• 편도의 피막 보존
• 심한 통증 동반	• 수술 후 통증 기간이 짧음
• 정상 식사까지 1~2 주 걸림	• 정상적인 식사까지 3일이면 가능

### 피타 수술법

피타 수술법이란 Powered Intracapsular Tonsillectomy and Adenoidectomy (PITA)의 약자로서 이른바 전동식 피막 내 편도 및 아데노이드 절제술을 일컫는 말이다. 미세 절제 흡인기(microdebrider)와 내시경을 이용하여 편도와 아데노이드의 비대한 부분만 절제를 해 주는 수술법으로 수술 후 통증이 적기 때문에 흔히 무통 편도수술이라고도 불린다. 하지만, 모든 편도선 수술이 필요한 환자에서 피타 수술을 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편도선 수술을 해야 하는 적응증으로는 크게



미세 절제 흡인기(microdebrider)를 이용한 편도 제거술

두 가지가 있다. 첫 번째로는 반복적인 만성 편도선염을 앓고 있는 경우로, 이러한 환자들은 고열을 동반한 편도선염이 1년에 3~4회 이상 반복적으로 앓게 되고, 대개는 평소에도 목감기를 자주 앓고 병원에서 처방받은 항생제를 수시로 복용한다. 대부분의 성인 편도선 수술 환자가 이에 해당한다. 이 경우에는 편도조직을 일부 남기는 피타수술로 하면 수술 후에도 남아 있는 편도조직에서 편도선염이 재발할 수 있기 때문에, 피막을 포함하여 편도선을 완전히 제거하는 예전의 방식으로 하는 것이 유리하다. 다만, 기존의 편도 절제술은 편도를 둘러싸고 있는 피막에 직접 조작을 하기 때문에 수술 시 편도의 피막과 주의 근육층이 손상될 가능성이 있다. 이로 인해 수술 후에 심한 통증을 유발하게 되고 회복이 늦기 때문에 정상적인 식사를 하기까지 1~2주 이상의 기간이 소요된다. 두 번째는 편도 및 아데노이드의 비대로 인한 심한 코골이와 수면 무호흡증의 경우이다. 대부분의 소아 편도선 수술 환자들이 이에 해당한다. 이 경우에는 편도와 아데노이드의 크기가 가장 문제이기 때문에, 돌출되어 나와 있는 편도조직과 아데노이드를 피타수술로 제거해 주면 통증과 출혈은 크게 줄어들면서 증상은 똑같이 개선할 수 있다. 피타 수술법은 돌출된 편도 조직만 미세 흡인기로 제거하는 방법으로, 피막에 인접한 편도 조직을 일부 남기게 된다. 정상 구조물은 최대한 남기고 피막 및 편도 주위 구조물에 최소한의 자극만을 주기 때문에 편도수술 후 발생하는 통증과 출혈을 획기적으로 줄일 수 있으며, 미각 이상과 같은 수술 후 생길 수 있는 합병증이 발생할 가능성이 거의 없다. 수술 후 통증이 적고 출혈 가능성은 현저히 낮아지기 때문에 회복속도가 빨라서 하루가 지나면 정상적인 식사가 가능하다. 아이가 편도 비대로 코골이와 무호흡 증상이 있어 수술을 해야 하는데, 수술 후 합병증과 통증 때문에 수술이 망설여졌었던 엄마라면 피타수술로 그 해답을 찾을 수 있으리라 생각된다.

04

난청과 보청기클리닉

김현지 교수



Profile

김현지 교수는 이화여자대학교 의과대학을 졸업하고 이화여대부속 목동병원 이과 전임의, 연세대학교 강남세브란스병원 임상연구조교수를 거쳐 현재 인하대병원 이비인후과 임상조교수로 근무하고 있다.

전문 치료 분야는 난청, 이명, 보청기 클리닉, 소아 난청 및 중이염, 인공와우 등의 청각 재활 분야이다.

# 듣지 못하면 소외감, 치매 위험까지 높아 시기 놓친 보청기 착용, 실명 후 안경 낀 것과 같아!

함께 살아가야 하는 삶의 질 측면에서도 귀 건강은 아주 중요하고 청각기관은 정서와 감정 중추와도 긴밀하게 연결되어 스트레스나 감정적인 부분에도 영향을 주고받는다. 청각 상태는 '들린다, 안 들린다'로 파악하지 않아야 한다.

글\_ 김현지 교수 / 이비인후과

“ 김현지 교수에게 이비인후과는 ... “소통과 공감”이다. 가장 이비인후과적인 기관 귀! 이 작은 기관이 인간에게 허락하는 엄청난 능력, 바로 소통과 나눔의 감각 ‘청각’이다. 모두를 행복하게 만드는 긍정 에너지를 가진 의사가 되고 싶다. ”

### 자연스러운 노화 현상 난청, 내버려 두면 증세 계속 나빠져

난청은 귀의 청각기관인 '외이, 중이, 내이' 중 이상이 발생하여 청력이 떨어져 소리를 잘 듣지 못하는 현상이다. 이러한 난청에는 외이와 중이 기관의 문제인 전음성 난청, 내이 기관 및 청신경의 문제로 발생하는 감각신경성 난청, 전음성 난청과 감각신경성 난청이 동시에 나타나는 혼합성 난청이 있다. 노인성 난청은 나이가 들어가면서 서서히 청력이 떨어지는 자연스러운 노화 현상이지만 내버려 두면 나이가 들수록 증세가 계속 나빠지는 감각신경성 난청이다.



여러가지 형태의 보청기

중이 임플란트 내부기기

외부기기 착용모습

### 보청기 사용은 난청 극복으로 가족과 사회로부터의 소외감 막아

보청기는 소리를 증폭시켜 사람의 귀에 도달시키거나 더욱 효과적으로 소리를 전달해주는 장치를 말한다. 보청기는 감각신경성 난청을 가진 대부분의 사람과 일부 전음성 난청을 가진 환자들에 대한 치료법 중의 하나이다. 그리고 난청을 치료하지는 않지만 극복해서 가족과 사회로부터의 소외감을 막아준다. 최근 들어 보청기의 수요는 급속히 늘어나고 있다. 사회가 고령화 되고 노인들의 삶의 질을 향상하려는 노력과 보청기에 대한 관심이 변하면서 노인 인구에서의 보청기 수요가 높아지고 있다.

### 보청기 착용 치매 예방 도움,

### 듣기를 넘어 뇌로 전달되는 '이해한다'는 개념 중요

최근 미국의 한 대학 연구팀의 연구에 따르면 난청이 있는 경우 정상 청력을 가진 사람보다 치매에 걸릴 확률이 2배에서 크게 5배가 높고 이때 보청기 착용이 치매 예방에 도움이 될 수 있다고 밝힌 바 있다. 듣는다는 것이 단순히 소리를 탐지한다는 것뿐만 아니라 듣고 말을 이해한다는 상위의 개념이 포함되기 때문이다. 소리가 제대로 뇌에 전달되지 않으면 인지 기능 저하로 이어질 수 있다.

### 시기 놓친 보청기 착용, 실명 후 안경 낀 것과 같아

난청은 시간의 변화에 따라 진행되는 경우가 많은데 많이 진행된 난청에서는 보청기에 적응이 어렵거나 시간이 오래 걸리고 보청기 착용 이후에도 만족할 만한 결과를 얻기 힘든 경우도 있어서 꾸준한 청력 관리와 조기에 개선하고자 하는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하다.

개인마다 난청의 유형, 주파수별 청력 소실의 정도가 다르기 때문에 반드시 이비인후과 전문의로부터 정확한 청력검사와 귀에 대한 세심한 진찰이 필요하다. 난청의 형태에 따라 소리는 들리지만,分辨이 어렵든지, '스/츠' 같은 특정 음을 듣지 못하거나 귀에서 소리가 나는 등의 증상으로 시작되는 경우도 많다. 따라서 막연히 소리가 '들린다, 안 들린다'로 청각 상태를 파악하지 않아야 한다.

정확한 진단 후 이에 바탕을 둔 보청기의 처방과 관리가 이루어질 때 가장 좋은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청력 검사 후 보청기에 대한 상담을 진행하여 본인의 청력에 맞는 보청기를 맞추게 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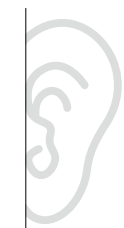
### 보청기 종류 다양한 형태로 개발

보청기의 종류는 생김 모양과 증폭 방식, 증폭 정도에 따라 다양한 형태로 개발되어 있다. 따라서 상담을 통해 어떤 종류의 보청기가 적합한지, 그 특성은 어떤지, 어느 쪽에 착용할지를 정하게 된다. 이후 각자의 귀 모양대로 본을 뜬 다음 자신의 귀에 맞는 보청기를 착용하게 된다. 이후에도 정기적으로 보청기 적합 검사를 하여 불편함을 교정하고 청력에 잘 맞춰지도록 조절하게 된다.

장기적으로는 보청기를 착용하는 귀에 난청이 더 심해지지는 않는지 꾸준한 관리가 필요하다. 올바른 선택과정과 조절 과정을 거친다면 보청기 착용에 실패하지 않을 수 있다. 보청기 착용 및 관리는 이비인후과 전문의와 상담 후 진행하는 것이 중요하다.

최적화된 보청기 착용으로도 충분한 효과를 얻지 못한 경우, 최근 이식형 보청기로 개발된 중이 임플란트나 고도 난청 환자들을 위한 인공와우 등이 청력 개선을 위한 또다른 선택이 될 수 있다. 이는 수술을 통해 기계를 이식하는 과정이 필요하지만, 보청기에 효과가 없는 환자들도 도움을 받을 수 있어 최근 이를 선택하는 환자가 늘어나는 추세다.

### 청각 자기진단



아래 문항 중 3개 이상에서 '네' 라는 대답이 나올 경우 난청을 의심할 수 있다. 이비인후과의 진료가 필요하다.

- 여러 사람과 한 번에 대화하는 것이 어렵다
- 전화 통화 시 잘 알아듣지 못하겠다
- 시끄러운 곳에서 대화가 힘들다
- 다시 말해달라고 자주 요청한다
- 아이나 여성의 말소리 이해가 힘들다
- 가족들에게 TV 소리가 너무 크다는 이야기를 자주 듣는다
- 대화할 때 귀를 기울여야 말소리를 이해할 수 있다
- 다른 사람들의 말소리가 증얼거리는 것처럼 느껴진다
- 귀에서 소리가 들린다



05

코질환

김영효  
교수



# 사랑의 방해꾼! 코 질환 삼총사 '축농증 & 비염 & 비중격'

가을은 '천고마비'의 풍요로운 계절이기도 하지만, 한편으로는 각종 '꽃가루의 반격'이 시작되는 비염의 계절이기도 하다. 코 안쪽에 이상이 생기면 늘 코막힘, 콧물, 기침 등의 증상이 나타나기 때문에 본인이 무슨 질환을 가졌는지조차 알기 어려운 경우가 많다. '축농증', '비염', '비중격' 등 얼핏 들어서는 비슷한 질환들을 자세히 알아보자!

글\_ 김영효 교수 / 이비인후과

“  
김영효 교수에게 이비인후과는 ...  
愛人(애인)이다!!!  
”

환자 진료, 전공의 학생 교육이 고단하고 힘들 때도 있지만  
결국은 너무 좋아서 함께 할 수밖에 없는 존재이기 때문이다.

코는 얼굴의 중심에서 숨 쉬고, 여러 가지 냄새를 맡고,  
미각에도 영향을 주는 중요한 기관이다.  
사랑에 '홀딱' 빠지는데 코가 중요한 역할을 하며  
사랑은 냄새에서 시작한다고 하기도 한다.  
사랑하고 싶다면 미세먼지와 가을 꽃가루로부터 우리를  
보호해 주는 코 건강을 꼭 챙기길 바란다!

**Profile**

김영효 교수는 2005년 인하대학교 의과대학을 졸업하고 인하대병원 이비인후과 임상연구의를 거쳐 현재 조교수로 근무하고 있다. 알레르기 비염, 비중격수술 및 코성형, 코골이 및 수면무호흡, 편도질환 및 소아이비인후과 분야에 대한 진료 및 치료를 하고 있으며, 2017년 세계 3대 인명사전 '마르퀴즈 후즈 후 인더월드(Marquis Who's Who in the world)'에 등재되었다.

**3차원 영상기반 내시경 부비동 수술 클리닉**

흔히 코에 농이 차 있다 하여 '축농증'으로 불리는 만성 부비동염은 코 내부에 세균성 감염이 적절히 해결되지 않고 만성화되어 발생한다. 코안을 내시경으로 들여다보았을 때 누런 회농성 비루(콧물)와 용종(물혹)이 발견되면, 내시경 부비동 수술을 계획한다.

내시경 부비동 수술은 개인 의원에서도 수술하고 있어 많은 환자들이 간단하게 생각하는 경향이 있다. 하지만 코 주위에 시각을 담당하는 시신경과 눈을 움직이는 근육, 뇌 기저부, 대동맥과 같은 큰 동맥들이 있기 때문에 이들이 손상되면 심각한 합병증을 유발할 수 있다. 인하대병원 이비인후과에서는 수술 전 촬영한 환자의 컴퓨터 단층촬영(CT) 영상을 활용하여 수술장에서 실시간으로 해부학적 위치를 파악하는 데 활용하는, '내비게이션(navigation)'이라

고 하는 3차원 영상기반 부비동 내시경 수술을 진행하고 있다. 이러한 첨단 장비를 이용해 특히 수술이 까다롭거나 재수술인 환자의 경우에도 더욱 안전하게 수술을 받을 수 있다(그림1).

### 개인맞춤형 비염 수술 클리닉

알레르기 비염으로 고생하고 있지 않은가? 약을 먹어도 그때뿐이고 반복해서 콧물, 코막힘으로 고생하다 보면, '수술로 시원하게 할 수 없을까?' 하는 생각 한번쯤 해봤을 거다.

알레르기 비염 환자는 흔히 '콧살'이라 부르는 비갑개 조직이 비대해져 있는데, 이 비갑개의 크기를 줄여 코막힘을 해소하고, 점막에 분포하고 있는 콧물 샘을 제거하여 콧물이 적게 나오게 하는 것이 비염 수술의 목표이다.

환자의 코막힘 원인이 '뼈' 부분의 비대인지, '점막' 부분의 비대인지에 따라서 수술 방법을 세심하게 고민해야 한다. 인하대병원 이비인후과에서는 다양한 비염 수술을 위해 레이저(laser), 고주파(radiofrequency), 초음파(ultrasonic), 미세절삭기(microdebrider) 및 코블레이터(coblator)와 같은 다양한 장비를 갖추고, 환자의 특성에 따른 개인맞춤형 비염 수술을 진행하고 있다(그림2).

### 수면 무호흡 복합치료 클리닉

수면 중에 코를 심하게 골다가 갑자기 '쿵' 하고 숨을 쉬지 않는 현상이 반복되는 '수면무호흡 증후군'은 방수에서 많이 접했을 것이다. 이러한 수면 무호흡 증후군은 고혈압, 뇌졸중, 성인병 등의 다양한 합병증을 일으킬 수 있기 때문에, 반드시 적극적인 치료가 필요하다.

수면 무호흡을 진단하기 위해 '수면다원검사'를 시행하는데, 인하대병원 이비인후과는 병원에 입원하여 검사하는 대신 기계를 집으로 가져가 간편하게 검사하는 이동형 검사기기를 갖추고 있다. 또한, 환자의 구강 구조, 코안의 동반 질환 등을 검사하여, 개인에 따라 양압기, 구강 내 보조장치, 그리고 코에서부터 구강에 이르는 부위를 복합적으로 수술하는 치료를 병행하고 있다. 잠을 자도 잔 것 같지 않고 영 개운하지 않으시다면, 오늘 바로 진료받아보길 추천한다!

### 기능적 비중격 수술/코성형 클리닉

코성형은 성형외과에서만 한다? 이비인후과에서 코안 쪽에 위치한 비중격(코를 왼쪽, 오른쪽으로 나누어 주는 가운데의 벽)이 한쪽으로 휘어 있거나, 비갑개가 심하게 비대해져 있는 환자에게 비

중격/비염 수술을 시행하여 코막힘을 해결하는 동시에 성형을 함께 진행하는 '기능적 코성형'을 시행하고 있다. 코막힘이 해결되면서 매부리코, 흰코, 낮은 코 등의 미용적 문제를 함께 해결하므로 만족도가 더 높다. 요즘은 남자들도 적극적으로 기능적 코성형을 의뢰하는 경우가 늘어나고 있다(그림3).

### 치아 임플란트 시술 전후 상담 클리닉

치아 임플란트는 얼핏 보면 이비인후과와 별 상관이 없을 것이라고 생각한다. 하지만 아주 밀접한 관련을 맺고 있다는 것!

특히 위쪽 어금니 부분은, '상악동'이라고 하는 부비동과 아주 가깝게 있다. 따라서 이 부위에 물혹이나 부비동염으로 인한 염증이 있으면 임플란트 시술 후 염증이 생기고 최악의 경우에는 임플란트를 제거해야 하는 사태가 벌어지게 된다.

또한, 정상적인 임플란트 시술 이후에도 간혹 상악동에 염증을 유발해서 문제가 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이런 경우 이비인후과를 찾아야 한다는 사실을 알고 도움받을 수 있기를 바란다.

코는 '얼굴의 중심'에 위치하다 보니 그 사람의 첫인상을 결정할 뿐 아니라, 숨 쉬는 데 있어 일차적인 방어 역할을 수행하는 중요한 기관이다. 먼지와 꽃가루로부터 우리를 보호해 주는 코 건강, 꼭 챙기시길 바란다.



그림1 수술 전 촬영한 환자의 CT 영상을 활용하여, 수술하는 동안 수술 기구가 좁은 코안의 어느 위치에 있는지를 실시간으로 정확하게 확인할 수 있는 '내비게이션' 장비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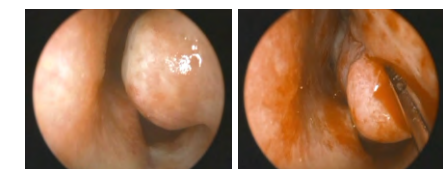


그림2 수술 전(좌)\_비염으로 인해 콧살(비갑개)이 비대해져 있어 코안이 심하게 좁아져 있다. 수술 중(우)\_미세절삭기를 사용하여 점막조직을 세밀하게 절제해 내는 모습이다. 콧살의 부피를 줄여서 코안의 공간이 넓어짐을 볼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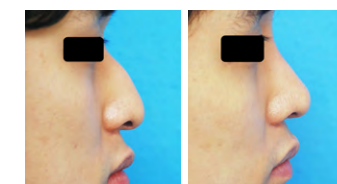


그림3 코성형 전과 후 사진. 기능적인 코막힘을 해결하면서도, 얼굴 모양에 맞는 자연스러운 코 모양을 만드는 '기능적 코성형'이 요즘 대세이다.



초음파



CT



MRI

# 어떤 질환이나 신체 부위에 따라서 검사할까? 초음파 vs CT vs MRI

MRI와 초음파 검사에 대한 건강보험 적용이 단계적으로 시행되면서 2018년부터 경도인지장애 등 치매 의심단계의 환자들도 고가의 MRI 등 영상검사에 대해 건강보험을 적용받게 된다. 어떤 경우, 어느 검사가 필요한 것인지 알아보자. 글 차상영 팀장 / 영상의학과

## 실제 움직이는 장기를 보는, 초음파

초음파 검사는 우리 귀에 들리지 않는 높은 주파수의 음파를 인체 표면에서 인체 내부로 보낸 후 내부에서 반사되는 음파를 영상화 시킨 것을 말합니다.

초음파검사는 영상을 실시간으로 보기 때문에 장기의 구조와 움직임까지 관찰할 수 있으며, 혈관 내부의 혈류도 측정할 수 있습니다. 방사선을 사용하지 않으며, 통증 없이 신속하게 검사할 수 있어 질환 진단 또는 치료 경과를 판단하는데 매우 쉽고 편리한 영상 검사법입니다.

### | 검사 방법 |

검사 부위에 초음파가 잘 전달될 수 있도록 수용성 젤을 바른 후 진행됩니다. 10~20분 정도 소요되며, 고통이 없고 인체에 전혀 해가 없습니다.

### | 검사 시 유의사항 |

상복부 검사 시 8시간 금식이 필요하며, 하복부 검사 시 방광에 소변을 채워 오면 검사에 도움이 됩니다.

### | 초음파 검사로 진단되는 질환 |

- 간 : 간암, 간경화증, 간농양, 지방간, 간디스토아
- 췌장 : 췌장염, 췌장암, 췌장낭포
- 비장 : 비종대, 비낭포, 종양
- 담낭 : 담낭암, 담낭염, 담석, 폴립, 담관확장
- 신장 : 신장암, 종양, 신낭포, 결석
- 갑상선 : 갑상선암, 갑상선염
- 유방 : 유방암, 유방 종양, 유선염
- 혈관 : 정맥류, 혈전, 혈관폐색 혈관 협착
- 전립선 : 전립선암, 전립선 종양, 전립선 비대

## 거의 모든 질병 검사대상인, CT

컴퓨터 단층촬영(CT)은 X선 촬영으로 나타낼 수 없는 신체의 단층 영상을 구현하는 장치로 인체에 투과된 X선을 컴퓨터로 분석하여 내부 장기의 밀도를 결정하고, 이를 통해 내부의 자세한 단면을 재구성하여 영상으로 나타나게 합니다.

몸의 거의 모든 질병이 CT 검사 대상이 됩니다. 특히 두경부, 폐, 심장, 뼈, 내장 등 복부질환에 필수적인 검사 방법이며, 모든 장기의 종양성 질환, 혈관 질환 및 외상을 파악하는데 도움이 됩니다.

### 인하대병원 영상의학과 도입된 '레볼루션 CT(RevolutionCT)

빠른 신호처리와 잔광 처리 효과로 고해상도 영상을 구현합니다. 신속한 회전 속도의 스캐너를 통해 심장과 같이 빨리 움직이는 장기에서도 정확한 영상을 볼 수 있습니다.

촬영 범위가 16cm로 기존 CT 대비 4배 정도 확대되어 여러 차례 촬영이 필요했던 넓은 부위도 한 번에 검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응급환자와 같이 신속한 촬영이 필요한 상황에서 최적의 솔루션을 제공하며 방사선 피폭도 줄일 수 있습니다

### | 검사 방법 |

방사선사의 안내에 따라 컴퓨터 단층촬영(CT) 기계 테이블 위에 누운 뒤 촬영이 시작됩니다. 조영제를 사용하는 경우 검사에 따라 3~6시간의 금식이 필요합니다. 소요시간은 5~10분 정도이며, 촬영 시 검사에 따라 약 10~20초간 숨을 참으라는 안내방송을 하는데 이때 숨을 잘 참아야 선명한 영상을 얻을 수 있습니다.

### | 검사 시 유의사항 |

-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금식하지 않습니다. 다만, 복부 및 골반 검사 시 검사 6시간 전부터 금식을 해야 합니다. 그 외 조영제 처방이 있는 검사는 3시간 금식을 해야 합니다.
- X-선을 이용하는 검사이므로 임신 중이거나 임신 가능성이 있는 분은 주치의와 상의가 필요합니다.

## CT로는 찍기 힘든 부분, 다양한 방향촬영가능, MRI

MRI 검사는 CT의 X선 대신 강한 자석의 힘과 전자기파를 이용합니다.

방사선의 영향에 대한 우려가 전혀 없으며, CT의 약점(공기가 많은 곳·뼈로 둘러싸인 부분)에 대해서도 보다 효과적이고 정확하게 촬영할 수 있습니다. 조직이 변형되지 않은 병변의 위치와 성질을 찾아낼 수 있고, 조영제 없이도 혈관검사나 관류 검사가 가능합니다. 또, 연골이나 디스크, 뇌혈관 등의 검사에 정확한 영상 결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인하대병원에 설치된 Discovery MR750w 3.0T 장비는 70cm Wide Bore 장비로써 타 병원에 설치된 60cm의 좁은 MRI 보다 넓은 상태에서 검사할 수 있어, 폐쇄공포증 환자나 소아 환자검사 시 유용합니다.

### | 검사 방법 |

환자가 검사할 때는 RF Coil이라는 장치를 검사하고자 하는 부위에 최대한 밀착하여 자세를 잡고, MRI 원통 안으로 들어가 20~40분 정도 최대한 움직이지 않은 상태에서 검사를 진행합니다.

### | 검사 시 유의사항 |

-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금식하지 않습니다. 다만, 복부 및 골반 검사 시 검사 6시간 전부터 금식을 해야 합니다. 그 외 조영제 처방이 있는 검사는 3시간 금식을 해야 합니다.
- MRI 검사는 자장을 이용한 검사이므로 금속물질은 반드시 제거한 후 검사해야 합니다.
- 방사선 중재적 시술을 한 환자는 반드시 비자성체 유무를 확인해야 합니다.

### | 환자 준수 사항 |

- 반드시 출입 전에 검사 담당 방사선사에게 알려 주시길 바랍니다.
- 인체 내 삽입 금속 이물 : 심 박동기, 대동맥 클립, 경추 동맥 클립
- 금속 파편 : 총탄 등
- 교정용 금속 이물 : 인공보철, 인공관절, 치아 보철, 틀니, 보청기 등
- 기타 금속성 문신, 거들, 브래지어

## MRI/초음파 -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대책

보건복지부는 "병원비 걱정 없는 든든한 나라"를 위해 평소 진료비용 부담이 컸던 MRI와 초음파에 대한 새로운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대책을 내놓았습니다.

	현재	2018년	2020년
MRI	암 또는 뇌혈관 질환 진단 시 1회 보험 적용	인지장애 또는 허리디스크 진단 시 보험 적용	혈관성 질환, 복부 촬영, 양성종양 등 보험 적용
초음파	임산부 및 4대 중증 질환자 보험 적용	모든 여성 대상 부인과 보험 적용	

## 초음파 vs CT vs MRI 비교

	초음파	CT	MRI
장점	장기의 구조와 움직임 관찰, 혈관 내부 혈류 측정 가능	두경부, 폐, 심방, 뼈, 내장 등 복부질환에 필수	CT의 약점인 공기가 많은 곳, 뼈로 둘러싸인 부분에 대해 정확하게 촬영가능
검사 전 준비	상복부 검사 시 8시간 금식, 하복부 검사 시 방광 채워야 검사 용이	복부·골반 검사 시 6시간 금식, 조영제 사용 시 3시간 금식	복부·골반 검사 시 6시간 금식, 조영제 사용 시 3시간 금식
검사 방법	누운 상태로 검사 부위에 젤을 바른 후 진행	약 10~20초간 숨을 참는다.	원통 안으로 들어가 최대한 움직이지 않은 상태에서 검사 진행
검사 소요시간	10~20분 소요	5~10분 소요	20~40분 소요
X선 사용여부	사용 안 함	사용	사용 안 함
검사 시 주의사항	특별한 주의사항 없음	임신 가능성 시 주치의와 상의	몸의 금속물질 반드시 제거



# 錢洞

‘전’ 찍어내던  
프레스 소리 울려 퍼지다

전동은 응봉산(자유공원) 동쪽의 완만한 경사면에 자리 잡은 동네다.

‘1번지’는 한 지역이 형성될 때 가장 먼저 ‘짚’ 되는 곳으로 동네의 상징적인 공간이다. ‘전동 1번지’ 만큼 우여곡절이 많은 땅도 드물다. 수차례 많은 기관에 짚 당했다. 먼저 군대가 들어왔고 이어서 신식 화폐를 만드는 전환국, 철도 관련 기관, 여학교 그리고 현재는 동사무소 등이 그 자리를 차지하고 있다.

글·사진 유동현 / 인천시 '굿모닝 인천' 편집장, '골목, 살아지다' 저자



전환국의 모습

옛 인천여고 교정. 현재 동인천동 주민센터와 중구문화원이 입주해 있다.

### 신식 화폐를 발행했던 인천전환국

1884년 갑신정변 때 일본군이 이곳에 주둔했다. 주변으로 일본인들이 따라 들어와 살기 시작하면서 동네가 서서히 형성되기 시작했다. 군대가 철수한 후 그 자리에 구한 말의 돈을 찍어 내던, 요즘으로 말하면 조폐공사인 전환국이 1892년(고종 29년)에 자리 잡았다. 주화의 원료 동(銅)을 일본에서 수입해야 했기 때문에 서울 조폐장은 여러 모로 불편했다. 기계와 기술, 원료 등의 수입이 편리한 인천에서 바로 돈을 찍어 내는 것이 유리했다. 서울에 있던 기계를 옮기기로 했다. 아직 경인철도가 개통되기 전이라 물길을 타고 이전하기로 했다. 기계를 한강까지 끌고 와 배에 싣고 강화수로를 거쳐 송현동 해안(수문통)에 배를 대고 하역했다. 너무 무거워서 갯벌에 빠지는 등 큰 어려움을 겪은 끝에 가까스로 돈 찍는 기계를 전동으로 옮겼다.

인천전환국에서는 압인기(프레스) 9대로 ‘대조선(大朝鮮)’이라 새긴 5냥짜리 은화 등을 발행했다. 조선에 와있던 청나라 위안스카이는 “청나라가 대국이고, 조선은 소국이니 대조선이라는 것은 국격상 체모에 불합하다.” 라며 시비를 걸어 한동안 ‘犬’자를 빼고 그냥 ‘조선’만 새겨 넣는 굴욕을 맛보기도 했다. 용산에 새로운 전환국이 세워지고 1899년 경인선 철도가 개통하면서 원료 수송이 쉬워지자 1900년 7월, 8년 전 배에 싣려 인천에 왔던 기계들은 이번엔 기차에 싣려 다시 서울로 돌아갔다.

전환국이 떠난 그 자리는 1904년 러일전쟁 때 다시 일본군이 잠시 주둔했고 철도감부(철도청 전신)로도 사용되었다. 이때 몸과는 여자들이 주변에 모여들면서 한때 ‘화동(花洞)’으로 불리기도 했다.

### 전형적 일본인 학교 인천여자실과학교

전환국도 군대도 떠난 자리를 학교가 차지했다. 인천여자고등학교의 전신인 인천여자실과학교가 이곳에 설립된다. 이 학교는 1885년 10월부터 신흥동 본원사 절방에서 10여 명의 이동을 교육시킨 것이

시작이다. 후에 본원사 옆쪽 현재의 신흥 초교 자리에 학교 건물을 세웠고 1907년 전동에 다시 분교를 설립했다. 이곳에 ‘인천여자실과학교’를 설립했고 후에 인천고등여학교(인천고녀)가 되었다. 이 학교에서는 여자에게 필요한 고등보통교육과 기예를 주로 가르쳤다. 무엇보다 재봉틀을 다루는 기술을 위주로 한 가사실업교육에 역점을 두었다. 이 때문인지 개교 당시 22명 학생 대부분은 기혼자였다. 이 학교에서는 매년 ‘바늘 공양’이란 의식을 치렀다. 바늘의 수고에 대해 감사하고 그 영을 위로하기 위해 부러진 바늘들을 두 부에 꽂아놓고 제사를 지냈다. 수학여행은 압록강 건너 만주 지역을 다녀오기도 했다.

이 학교는 전형적인 일본인 학교였다. 1917년 한국인 학생 1명이 처음으로 입학하며 1945년 광복 때까지 98명만 졸업했다. 한국 학생들은 한 학급에 두어 명밖에 없었다. 보통 입학 경쟁률이 20대 1에 달해 합격자 명단이 신문에 게재되곤 했다.

이들 중에 이옥경(8회)이란 학생이 있었다. 그는 인천고녀를 졸업하고 도쿄 일본여자음악학교에서 공부한 후 경성방송국 최초의 여자아나운서가 된다. 우리나라 최초의 여성 패션디자이너로 이름을 날린 노라노가 그의 딸이다. 노라노의 숨씨는 학교에서 재봉질을 배운 어머니의 영향을 받은 것이 아닌지 추측해 본다.

### 옛 흔적을 찾아 길을 나서다

교정이었던 곳에 여전히 우람한 은행나무와 회화 나무들이 커다란 그늘막을 만들고 있다. 특히 늦가을이 되면 이 아름답디 은행나무들은 동네를 온통 노랗게 물들인다. 동네 사람들은 오래전부터 마을 초입에서 수호신 역할을 한 나무에 초콜하게 제사를 지내곤 한다. 흔적은 돌이 돼 한곳에 모여 있다. ‘구적 한국시대 조폐소 지적(舊蹟 韓國時代 造幣所址跡)’이라 새긴 비석과 전환국에서 만든 화폐의 모형이 나무 밑에 세워져 있다. 그 옆에는 인천여고의 상징인 은행잎을 형상화 한 학교 표지석이 있다.



70년대 인천에서 가장 규모가 컸던 탁구장의 폐허

중구문화원 뒤쪽에는 계단 위 중구보건소 밑까지 연결된 것으로 보이는 방공호가 있다. 일제강점기 때 미군 공습을 피해 피신 연습을 하는 여학생들의 모습이 그려졌다. 요즘 한여름이 되면 그 앞으로 더위를 피하려는 사람들이 모여든다. 입을 크게 벌린 굴속에서 시원한 바람이 쉴 새 없이 나온다.

교정 뒤편으로 걸음을 옮기면 시간을 잊게 하는 동네를 온전히 만날 수 있다. 해관과 은행 그리고 전환국 사택으로 사용되었던 일본식 주택과 한옥들이 골목을 나눠 쓰고 있다. 특히 일본식 주택이 늘 어선 골목을 사진에 담으면 마치 일본 영화 ‘철도원’과 ‘러브레터’ 등에서 본 듯한 작은 동네가 그대로 담긴다. 골목 모퉁이에 나무전봇대 하나가 곳곳이 서있다. 근 100여 년 동안 마을을 환히 비추고 개구장이들 말뚝박기 놀이의 든든한 기둥이 돼 주었을 것이다. 인일여고 정문 옆의 시멘트 길을 오른다. “여기 학교 아닙니다.” 관리인이라고 밝힌 한 남자가 길을 막는다. 여기는 한국은행 합숙소다. 현대식 2층 건물에 커다란 회화나무가 작은 운동장 한편에 우뚝 서 있다. 옛 모습은 다 사라졌지만 이 건물은 예전에 인천조선은행 은행장 사택이었다. 이 부근의 많은 땅이 한때 이 은행의 소유였다.

#### 우울한 역사를 품고 있는 안경수의 한옥 터

공원 오르는 길 오른쪽에 인현·전동 경로당이 있고 그 옆에 빌라 한 채가 이웃해 있다. 이 터는 ‘우울한’ 역사를 품고 있다. 오랫동안 한옥 소슬대문으로 외부와 단절된 채 거의 방치되었던 이 터에 대해 ‘인천 한세기(신태법)는 이렇게 적고 있다. ‘행랑채와 사랑채 그리고 명물이던 목련 고목도 없어졌으나 대문

안에 연못을 둔 아담한 정원과 화사한 나이트 주목이 옛 모습대로 안채를 지키고 있다. 이 집이 인천에서 가장 유서가 분명한 대표적인 구옥(舊屋)이다. 이 한옥은 1892년에 일본의 기자재와 기술로 인천여고 자리에 전환국을 건립할 때 전환국 방관(幫辦)으로 일본을 왕래하며 실무를 담당하던 안경수가 자신이 거처하기 위해 지은 것이다.

이 집은 안경수(1853~1900)가 지었다. 당시 세도가 민영준의 통역관으로 발탁되면서 정계에 발을 디딘 안경수는 인천전환국을 설립하는 데 큰 역할을 했다. 부평부사를 역임했고 독립협회 초대 회장까지 지낸 인물이다. 전환국과 수십 걸음 떨어진 곳에 커다란 별택을 짓고 첩을 두었다. 을미사변 직후 친러파 이범진과 한패가 된 쿠데타가 실패하자 이 별택으로 피신해 왔다. 이후 황제 양위 음모가 발각되자 일본으로 망명했다가 후에 스스로 돌아와 지수했으나 교수형에 처해졌다. 소식을 전해 들은 첩은 이 저택에서 자살했다. 한 동안 이 집에 밤마다 유령이 나온다는 소문이 나돌기도 했다.

그 후 이 저택은 미두취인소 사택으로 잠시 사용되다가 고타니 마사지로(小谷益次郎)의 집이 되었다. 6·25 전쟁 후에는 박순정 여의사가 이 자리에 전동의원을 개업했다. 인천에서 개업한 한국인 의사 중 최초의 여의사로 알려져 있다. 2009년 오랫동안 폐허로 남은 저택은 허물어지고 얼마전 빌라가 들어섰다.

#### 제물포고와 애국심을 일깨웠던 ‘성덕당’

삼태기처럼 생긴 분지 모양의 땅에 들어앉은 제물포고는 1954년 개교하자마자 명문고의 대열에 섰다. 그 기틀을 마련한 사람은 초대

교장인 길영희 선생이다. 독립운동가이자 계몽운동가였던 그는 교훈을 ‘학식은 사회의 등불, 양심은 민족의 소금’이라고 정하고 유한흥국(流汗興國·땀을 흘려야 나라가 발전한다)의 뜻을 학생들에게 심어 주었다.

제물포고가 들어앉은 터는 ‘웃터골’이다. 완만하게 경사지고 녹음이 푸르러서 천연 스탠드와 그라운드 구실을 톡톡히 했다. 1920년에서 1935년까지 15년간 인천공설운동장으로 사용되었다.

1935년 이 운동장에 제물포고의 전신인 인천중학교가 세워졌다. 광복 전에는 주로 일본인들이 다닌 학교였다. 당시 노인들은 인천중학교 제물포고를 ‘웃터골 학교’라고 부르기도 했다. 개교 시 건립한 벽돌조 강당 ‘성덕당(成德堂)’은 일제강점기 군국주의와 식민지를 정당화하는 훈시의 장소였지만 광복 후 유진오, 백낙준, 함석헌 등 당대 석학들이 강연을 통해 학생들에게 민족혼과 애국심을 일깨운 곳이다. 성덕당은 2008년 10월 등록문화재 제427호로 지정되었다.

#### 학교 담 옆 커다란 빌라촌과 ‘구름다리’

전동은 학교와 궁합이 잘 맞는 동네다. 제물포고, 인일여고, 인천여고, 인천중, 축현초 등 많은 학교들이 좁은 길 사이사이에 두고 있었다. 다시 발걸음을 돌려 인일여고 정문을 지나 화평동 방향의 일방통행 길을 걸으면 학교 담 옆에 있는 커다란 빌라촌을 만난다. 예전에 전동변전소가 있었던 터다. 이 변전소는 일제강점기부터 도심지의 전력을 공급했던 중요한 시설이었다. 1990년대 초 변전소는 없어졌고 옆에 있는 전동교회가 그 터(약 2,500m)를 구입하려고 했으나 뜻을 이루지 못하고 결국은 빌라가 들어섰다.

빌라 앞을 지나면 경인선 철로를 가로지르는 작은 다리가 나온다. 사람들은 이 다리를 그냥 ‘구름다리’ 혹은 ‘인천극장 가는 다리’라고 불렀다. 기차가 달리는 철길 위를 걸어 다니니 마치 구름 위를 걷는 기분이 들어서 이같이 부른 듯하다. 언제부턴가 굳이 한자로 고쳐 운교(雲橋)라고 했다.

이 다리는 경인철도가 개통되던 즈음에 7m 정도의 높이로 설치됐다. 그때는 나무로 만든 작은 목교였다. 자동차가 거의 없던 시절로 사람들이 주로 다녔고 기껏해야 우마차나 인력거 통행이 전부였기 때문에 목교라도 충분히 버틸 수 있었다. 썩지 말라고 검은 염료를 발랐는데 일본인들은 이것을 흔히 ‘흑교’라고 불렀다. 해마다 가을이면 일본인 축제 행렬이 그곳을 지나갔다. 지금의 인천여상에 있던 신사에서 출발한 그들의 신을 모신 가마를 앞세우고 소리를 지르며 다리를 지나갔다. 이 광경을 보기 위해 어른 아이 할 것 없이 많은 구경꾼들이 구름다리 위에 구름처럼 모여들었다.

#### 그때, 이곳 전동

**인일여고** 1908년 4월 6일 중구 전동 1번지 전환국 자리에 3년제 인천여자실과학교로 문을 열었다. 초창기에는 당시의 복잡한 안팎 사정 때문에 학교 이름이 여러 차례 바뀌고, 일제강점기에는 흔히 ‘인천고녀’로 불렸다. 1998년 연수구 연수동에 교사를 신축하여 이전하였다. 2008년 국내 공립여자고등학교 중에서 두 번째로 개교 100주년을 맞았다.

**전동 떡집** 60년 가까이 찰싹떡만을 만들어 온 전통 떡집이다. 시어머니에 이어 며느리 한영희(66) 씨가 일본풍의 팔랑금 찰싹떡을 만든다. 그는 시어머니를 도우면서 찰싹떡 만드는 것을 배웠다. 70~80년대만 해도 국회의원 선거 때나 명절 때면 찰싹떡을 사방에 퍼다 날랐을 정도로 장사가 잘 됐고, 찰싹떡을 사가기 위해 줄을 서서 기다렸을 정도였다. 지금도 서울뿐만 아니라 외국에서도 주문이 줄을 잇고 있을 정도로 이 집 찰싹떡 맛은 널리 알려져 있다.



CLIMBER

Kwon Young-Se

‘산’을 오를 수 있다면 모든 것을 연관 지어 살아 온 그에게 산은 하나다. 산은 나의 전부다, 아니 산 때문에 나머지 전부를 할 수 있었다고 고백하는 권영세 클라이머를 만났다. 에디터\_이정희

## ‘산’ 때문에 전부를 할 수 있었던 벽 위의 발레리노 로맨티스트 바위꾼 권영세 클라이머

### 첫사랑보다 짜릿한 첫 산행

#### 50일간의 눈물, 백두대간

북한산 백운대를 무작정 친구 두 명과 함께 오른 것이 그의 첫 산행이다. 이후 권 센터장은 군에서 만난 친구를 따라 본격적으로 산을 타면서 전역하자마자 백두대간 중추에 나섰다.

당시 그의 몸무게 57kg, 등에 진 배낭 무게 50kg, 눈 속에 고꾸라져 이등바등한 기억과 끝이 보이지 않는 길을 걸으며 아프고 힘들어 눈물로 미주했던 시간이 떠오른다.

그리고 마침내 정상에 올라 멈추는 순간, 가슴의 모든 게 씻겨 지면서 평평 한참을

울었던 그때도 잊을 수 없다.

50일간의 중추를 끝낸 그에게 슬럼프가 왔다. 그때 선배의 권유로 광화문 암벽장을 찾게 되었고 거기서 본격적으로 클라이밍을 하게 되었다.

클라이밍을 하면서 전국대회에서 입상도 하고 국내 랭킹 10위 안에 들기도 했지만, 세상은 꼭 실력으로만 되지 않는다는 씩씩함을 맛봐야 했다.

#### 7년 전 지금의 ‘권영세 클라이머 센터’를

#### 인수하면서 그는 인생 2막을 연다

경기가 어려워진 IMF 때 실직하면서 산을

접고 위험한 기술인 ‘로프’ 타는 기술을 배워 7년간 생업에 집중했다.

그동안 가정도 꾸리고 결혼 4년 만에 집 장만을 하면서 생활이 안정되니, 다시 운동하고 싶었다. 직장도 안정돼서 관리직 팀장으로 정년도 보장되었지만, 클라이밍을 버릴 수 없었다고 한다.

“클라이밍에 미쳤기 때문에 만일 지금 노가다를 떠다고 해도 ‘등반을 할 수 있다면’ 뭐든 할 겁니다. 지금도 너무 좋아서 미친 듯이 가르쳐요.”

“일반사람 눈에는 바위지만, 제 눈에는 거기에 많은 길이 보여요!” 산을 좋아하기 때문에 스무 살 때도 40대 후반인 지금도 고산 원정산행을 생각하면 아직도 설렌다.

#### 전족 신고, 벽에서 하는 발레

발레리나처럼 굳은살이 박혀있는 권 센터장의 발이 눈에 들어온다.

“클라이밍을 손으로 매달려 하는 운동이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아요. 클라이밍을 벽에서 하는 발레라고 하잖아요. 처음부터 전족을 신는 건 아니지만 엄지발가락이 접힐 정도의 작은 신발을 신어야 해요. 그래야 옛지가 들어가서 발을 디딜 수 있거든요.

#### 인간의 과욕, 지만, 자연은 허락하지 않는다

권 센터장은 누구나 상식적으로 알고 있는 ‘안전수칙’이 산뿐 아니라 모든 운동의 기초라고 말한다.

“내가 아무리 실력이 좋아도 실수할 수 있다고 생각해야 하는데 자신감을 넘어서 자만이 문제인 거죠. 비 오는 날, 그것도 전문 산악인이 암벽등반을 왜 합니까? 내 실력에 자만하지 말고 기초는 확실하게 지켜야 흔들리지 않는 거라고 생각해요. 우리 인생 모두가 그렇지 않나요?”

그에게 천국인 ‘산’, 그런 산이 위험한 곳이라고 인식되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다. 그의 말에서 산은 넉넉한 가슴으로 우리를 품어주지만, 그 산에 안길 사람은 최소한의 ‘자격’, 그것은 자연을 존중하는 마음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스친다.

#### 온 사이트 등반,

#### 우리말로 ‘찻는 오르기’ 하고 싶은

딱 보고 한 번에 오르는 ‘찻는 오르기’ 가운

사이트 등반이다.

누군가 개척해 놓은 정보가 있는 길보다 새로운 길을 찾는 기쁨으로 오르고 싶은 마음이 전해진다.

막내까지 대학을 진학시키고 나면 못가 본 세계의 산을 오를 등반투어를 계획하고 있는 그다. 나만의 인생 산을 가고 싶기 때문에 물질 구축도 스스로 준비하고 있다.

“후원이 있으면 좋지만, 부담도 있을 거 같아요. 온전히 나만의 산, 10원 있으면 10원 어치, 100원 있으면 100원 어치 오르죠 뭐.”

‘나만의 인생 산’, 이라고 말하는 그의 얼굴에서는 물질적 구축까지 완벽하게 준비할 거라는 자신감이 엿보인다.

#### 산은 인생이고 사람이다

인생에서 밟고 따를 수 있는 좋은 인연이 있었음에 대한 감사도 빼놓지 않는다.

슬럼프에서 건져준 선배, 이상을 갖고 싶다면 이상을 버리라고 조언해 준 코오롱의 윤재학 선배, 늘 시원한 답을 주는 형 동생으로 자내게 된 동국대학교 모 교수님 그리고, 지금은 고인이 된 가장 존경하는 누나이자 산 선배인 고미영 씨를 말한다. 인터뷰 내내 여러 번 나왔던 이름 ‘미영 누나’, 그럴 때마다 그에게서 그리움이 왈각 전해온다.

#### 좋아하는 일을 직업으로 갖는 것 만큼

#### 행복한 일이 있을까?

또 그렇게 변함없는 ‘설렘’이 있는 건 신이 내린 축복인 듯싶다.

지금도 고산 원정산행을 생각하면 설렌다는 그의 표정은 ‘해맑음’ 말고 무엇으로 표현할 수 있을까 싶다. 세계 등반 투어를 계획하지만 그래도 북한산은 30여 년 사랑이 담긴 가장 좋아하는 산이다. 그래서 지난 주는 북한산에 올라 그리운 가을 하늘과 바람, 구름을 가슴에 가득 담고 왔다.



어려움이 오더라도 멈추지 않는 ‘꾸준함’이 그의 철학이다. 결심한 바가 있어서 머리를 기르고 있다는 권영세 클라이머의 내일이 또 기대된다.



권영세 클라이머의 고백

#### 벽 위에서 발레를 꿈꾸는 클라이밍의 매력

#### 육체, 정신 건강 발달, 두뇌발달에 좋은 운동이다

두뇌발달을 교육기준으로 생각하는데 나이가 들어도 두뇌발달 머리가 좋아지고 건강해지는 것이다. 운동을 하면 신체전달은 두뇌를 통해서 나가기 되는데 이때 클라이밍은 어느 홀드를 잡아야 할지, 어떤 손으로 잡을지 또, 발은 어디를 디벼야 하는지를 살핀 시각 영상은 후두엽으로 전달된다. 그러면 시상면에서 끝난 게 아니고 신체가 움직여야 하니 까 두정엽으로 전달되고 클라이밍을 배운 정보 전두엽의 지식이 뇌하수체로 내려가서 신경으로 전달된다. 그래서 클라이밍은 두뇌의 네 가지 기능을 다 움직여야 하는 운동인 셈이다.

#### 인간의 첫걸음 1년, 벽에서 자연스럽게 걸기도 1년

벽에서 자연스럽게 걸려면 1년은 걸린다. 우리가 평지 보행을 하는데 태어나서 1년은 걸리지 않는다. 기초를 잡는데 1년은 예상하라는 것이다. 중력이 작용하는 지구라는 공간 안에서 운동한다는 거 다른 거 없다. 모든 스포츠는 중력을 다스릴 줄 알아야 한다. 균형이 중요하다는 것이다.

#### 연령, 성별 제한 없이 모두가 할 수 있는 운동이다

통풍 환자도 여러 명 회복하기도 했다. 치매 예방은 물론이고 클라이밍을 하면 사지를 사용해야 해서 디스크 등 허리 통증 환자에게 도움이 된다.

| 권영세 클라이밍센터 | 02-2275-5015



### 병원선이란?

병원선은 환자의 수송과 치료 설비를 갖춘 배로서 국제적으로 병원선 표지가 정해져 있다.

국제법으로 정해진 병원선은 전쟁 중 존중의 대상이 되고, 포획(몰수하는 일) 또는 공격을 받지 않으며, 중립국을 24시간 이내에 떠나야 하는 제한도 받지 않는다.

### 바닷길을 다니는 종합병원 병원선, 우리나라는 현재 5척 운행

국내에서는 의료취약지인 도서지역 주민들을 위해 1970년대부터 병원선 운항을 시작했다.

일반적으로 병원선에는 공보의로 복무 중인 의사, 한의사, 치과의사를 비롯해 간호사, 의료기사 등의 의료팀과 선장·항해사·기관장 등 선박운영팀을 포함해 15명 안팎의 인원이 근무한다. 드라마처럼 외과의사가 근무하는 병원선은 없다.

## 드라마처럼 '외과의사 하지원' 없지만 섬마을의 아픈 곳을 치유하는 병원선은 있다!



섬을 돌며 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 선박 '병원선'을 아는가?

청춘 의사들의 가슴 뛰는 항해, 섬마을 사람들과 인간적으로 소통하며 진심을 처방하는 진짜 어른으로 성장해가는 과정이 그려지는 드라마 '병원선'이 방송되고 있다.

글 편집부



사진: MBC 방송화면



병원선에는 커녕 약국조차 없는 섬마을을 돌면서 의료 행위를 하는 우리나라의 병원선은 인천, 경남, 전남, 충남에서 5척이 운행 중이다.

### 충남 501호

28개의 섬을 매달 한차례씩 도는 충남도의 병원선 '충남 501호'는 내과, 치과, 한방과와 임상병리과·방사선실·약제실 등을 갖추고 연간 20만 명 이상을 진료한다.

### 전남 511호 & 512호

다른 지역에 비해 섬이 많은 전남은 병원선 '511호와 512호' 2척을 운영하고 있지만 1대 더 많다고 해서 전남 섬 지역 주민들이 높은 의료 서비스를 받는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한다.

전남의 병원선 1대가 담당하는 섬의 개수를 비교해보면 최대 8배나 많기 때문이다. 국내에선 유일하게 병원선 2대를 운영하고 있지만, 전남의 수많은 섬들을 자주 다니려면 한 대 정도는 더 있어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다.

### 경남 511호

경상 511호는 보건의료기관이 없는 창원·통영·사천·거제시, 고성·남해·하동군의 바다를 접한 7개 시·군 41개 도서 지역을 순회하며 주민의 건강을 돌보고 있다.

또, 음악 예술인들이 병원선 진료에 맞춰 함께 섬마을을 찾아 문화와 예술 공연을 펼쳐 섬마을 주민들의 마음도 달래주고 왔다. 문화체육관광부가 '병원선'을 활용해 추진하고 있는 '움직이는 예술정거장' 사업의 하나로 섬마을을 순회하며 진료하는 병원선과 소규모 공연이 한자리에서 펼쳐지며 섬마을 주민들의 일상에 활기를 주는 '병원선 문화공연'이라고 한다.

### 인천 531호

인천시가 운영하는 165톤 규모의 병원선 '인천 531호'에는 내과 전문의인 공보의 2명과 치과, 한의과 공보의 각각 1명씩 4명의 의사

와 3명의 간호사가 근무 중이다. 여기에 선장, 기관장, 항해사 등 선박 운영팀을 포함하면 총 인원이 15명이다.

### 사랑이야말로 가장 훌륭한 묘약

섬에 고립된 환자들을 찾아가 아픈 곳을 치료한다는 것은 때로는 그 너머의 아픈 마음을 치유하기도 한다. 병원을 집필한 윤선주 작가가 역시 '심장의 온도를 높이고 위로가 되는 따뜻한 이야기'를 하고 싶은 바람을 전했다.

드라마 공식 홈페이지를 보면 '고작 사랑이지만 그래도 사랑이니까. 사랑이야말로 상처를 치유하고 크게 성장시키는 가장 훌륭한 묘약'이라며 드라마를 통해 확인하길 바란다고 말하고 있다. 작고 소박한 바다 위, 열악한 환경의 병원선에서도 생명의 온도는 똑같다. 아니 어쩌면 고립되어 제때 의료행위를 받을 수 없는 그들에게는 더 위로가 따뜻한 온도가 필요할지 모르겠다.

### 서해 11개 섬마을을 도는 인천 531호, 인하대병원 의료진도 항해하다!

인천 병원선 531호는 응진군이 운영하는 병원선으로 의료 사각지대에 놓인 섬마을 주민을 위하여 1999년부터 시작되었다. 응진군 덕적군도(덕적도, 자월도 부근)의 경우, 소이작도, 문갑도, 울동 등 11개 섬이 해당된다.

인하대병원은 '섬 프로젝트'와 '애인섬 만들기' 도서 의료 활동의 하나로 병원선에 의료진이 재활의학과와 통증의학과와 진료 지원을 보낸다. 2014년 3월 사립대학병원 가운데 처음으로 공공의료 사업지원단을 발족한 우리 병원은 인천 섬 지역을 찾아 다양한 의료봉사활동을 펼쳐 큰 호응을 얻고 있다.

2015년 11월 인천시와 '응진군 도서 지역 민관 진료협력'을 맺고 응진군 관내 섬을 돌며 주민들을 진료하는가 하면 올 3월에는 7명의 의료진이 대청도에서 2박 3일 동안 진료하는 등 백아도, 소이작도, 자월도 등을 찾는 등 인천 도서 지역 의료지원을 위해 두 팔을 걷어붙였다.



## 환자가 이야기하는 인하대병원 “한결 편안한 마음으로 믿고 맡길 수 있었습니다”



맞춤형 암 치료 솔루션 제공하는  
인하대병원 암통합지원센터!  
조기 진단과 빠른 치료 방향 결정을 위해  
당일 진료, 당일 검사가 이루어집니다.

진단에서부터  
수술 및 심리치료까지  
원스톱 진료 서비스를 제공하며,  
여러 과의 의료진이 환자와 함께  
치료 계획을 수립하는  
다학제 협진을 펼칩니다.

며칠 전  
외과 허민희 교수님께 수술받은 환자입니다.  
유방암 진단받고 많이 당황했는데요,  
한미숙 코디네이터 선생님의 친절한 상담과  
허민희 교수님의 빠른 진료,  
제 상태에 맞춘 수술을 해주셔서  
한결 편안한 마음으로 믿고 맡길 수 있었습니다.

입원해서도 입원전담 진료교수인  
박정미 교수님이 불안한 환자 상태를  
계속 상담해주시고 안심시켜주시니,  
얼마나 감사한지~ㅠㅠ

유방암은 두려운 게 아닌,  
이겨낼 수 있는 병이라는 믿음이 생겼습니다.

환자를 안심할 수 있게  
따뜻한 마음으로 배려해주시는  
유방갑상선센터 허민희 교수님!  
입원외과과 박정미 교수님!  
암통합지원센터 간호사님들과 병동간호사님들의  
노고와 헌신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인하대병원 만세~!!^^

인하대병원 외과 허민희 교수님께 수술받으신 환자 김효이님께서  
블로그에 달아주신 댓글을 발췌한 것입니다.

우리 병원은 환자 중심의  
입원 진료 시스템 구축을 위한  
‘입원의학과’가 있습니다.  
입원전담전문이는 수술 상황, 수술 후의  
소소한 증상은 물론 입원환자의  
정보를 공유하며 의료 질을  
높이고 있습니다.

17병동 수간호사 선생님을 비롯하여, 병동 간호사 선생님  
그리고 조무사 여사님들 안녕하세요?  
저는 얼마 전 17병동에 입원해서 치료를 받았던 환자 천명조라고 합니다.

만성 폐쇄성 폐질환으로 수년 동안 인하대병원의 중환자실 뿐만 아니라  
병동에도 여러차례 입·퇴원을 반복하며 치료를 받았습니다.

다행히도 지금은 건강히 직장 다니며 잘 지내고 있습니다.

이번에 약 12일이란 기간 동안 입원해 있으면서 우리 17병동 간호사 선생님들과  
여사님들께 감동을 많이 받았습니다.

환자를 성심껏 진심으로 가족처럼 돌봐주시고,  
웃음으로 희망을 주시는 모습을 여러 번 보고, 그런 정성 가득한 마음을 느끼며  
힘내서 치료를 받을 수 있었습니다.

밤엔 환자들이 깽세라 살금살금 일하시고, 급하신지 종종걸음을 치시면서  
바쁘게 움직이는 모습이 경이롭기까지 했습니다.

그런 선생님들께 감사하는 마음이 넘쳐나 격려를 드리고자 글을 씁니다.

비록 열악하고 힘든 환경이지만, 그 속에서 늘 봉사하는 마음으로 수고하시는  
17병동 간호사 선생님들.

환자들은 선생님들을 믿고, 의지하며 병마와 싸울 것입니다. 환자와 보호자  
모두 고생하시는 선생님들에게 언제나 고마워하고 있을 겁니다.

언제나 힘내 주시고 17병동 화이팅입니다.

선생님들께 항상 좋은 일만 가득하시길 두 손 모아 기원합니다.  
행복하세요. 그리고 늘 건강하세요.

천명조 드림.

### 시작은 친절로, 마무리는 감동으로!

- 환자와 보호자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고, 그들의 눈높이에서 무엇이 필요한지를 고민합니다.
- 궁금해하는 진료과정에 대해 상세히 설명하여 이해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 항상 환자가 최우선이라는 가치를 실현하고, 배려와 존중을 통해 감동을 줄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 전 직원이 한 마음으로 친절하고 설명 잘 하는 병원으로 더 좋은 의료문화를 만들어가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 안전한 병원, 인하대병원

- 병동 스크린도어 설치로 감염 예방과 병문안 문화 개선을 위한 선도적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 환자 침대 전체를 전동침대로 교체하여 환자분들의 편안함을 증진시키고, 낙상과 같은 안전사고를 예방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 의사 간호사가 투약 및 치료의 전 과정에서 환자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생각하고 높은 수준의 진료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 퇴원 후 치료계획에 대한 설명이나 입원 중 회전시간 등에 대한 정보를 상세히 제공하고 있습니다.



인하대병원과 가수 김재희가 함께하는 '제2회 생명존중 콘서트'

# 다·들·힘·내! '끈'을 잡고, 함께 가는 거야!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생명의 가치를 알고자 생명존중 콘서트를 열게 되었다."  
지난해 5월에 이어 두 번째로 생명존중콘서트 '다·들·힘·내!'를 개최하게 된  
인하대병원 김영모 병원장의 메시지가 송도 트라이볼 무대를 '울림'으로 채운다.  
이번 역시 노래로 생명을 살리겠다는 '사랑할수록'을 부른 부활 보컬 출신  
'가수 김재희와 함께' 두 번째 '끈'을 잇는 소중한 시간이었다.

글 김시현 차장 / 공공의료사업지원단



▲ 생명의 노래로 마음을 전하는 '김재희와 친구들'

▼ 가슴을 울리는 포스코건설 합창단 포코러스의 공연



▲ 엄마 미소 짓게 하는 귀여운 인하대학교 댄스팀



▲ '생명존중'의 가치를 알리고자 노력하는 가수 부활 출신 보컬 김재희

▲ 박력있는 목소리, 그룹 캔의 배기성 시원함과 유쾌함으로 즐거운 무대를 선사했다.

▲ '생명존중'을 실천하고 있는 3남 3녀 다둥이 아빠 그룹 V.O.S의 박지현

▲ '세월이 가면'으로 우리의 향수를 불러 일으킨 가수 최호섭

**인하대병원, 자살시도자 사후관리사업을 수행하는 기관**  
우리나라는 OECD 국가 중 11년째 자살률 1위다.  
인하대병원은 자살시도자 사후관리사업을 수행하는 기관으로서 지역주민의 건강과 행복을 지키는 사명감으로 생명의 소중함을 되새기는 작은 축제의 자리를 선사하는 시간이었다.  
이 사업은 응급실에 내원한 자살시도자의 정서적 안정을 돕고 재시도 및 자살을 예방한다는 게 핵심이다.  
사례관리팀은 자살시도자에 대한 사례관리 서비스를 제공하고, 지역사회 응급의료기관, 정신건강증진센터를 연계해 자살시도자의 정신·심리적 치료와 사후 관리 서비스, 사회복지 서비스 등을 전문적으로 제공할 수 있는 관리 협력 체계를 구축하고 있다.



▲ 김영모 병원장, MC 박리디아, 가수 김재희가 함께하는 Talk Time

**아름답고 따뜻했으며, 소중한 시간이다**  
가슴 뭉클하게 만든 마지막 메시지 '함께 가는 길'은 '다·들·힘·내!'라는 공연 타이틀과 어울리며, 생명존중 콘서트는 계속 이어져야 한다고 외치고 있는 듯하다.  
'생명존중'의 강렬한 메시지는 큰 여운이 되어 퍼져 나갈 것이며, 한번쯤은 내 옆을 돌아보는 계기가 될 것이다. 소중한 생명의 가치를 알리기 위한 '생명존중 콘서트', 누군가에게 위로가 되어 놓지 않는 '끈'이 되리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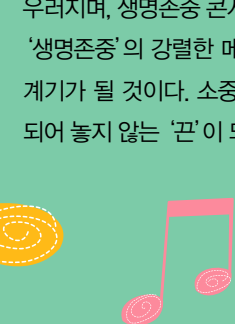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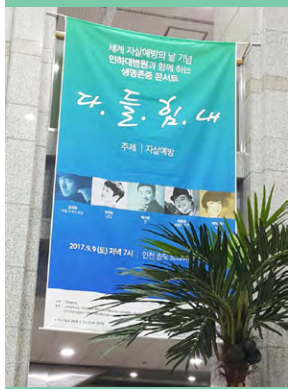
### 함께 가고 싶은 마음으로 부르는 노래

다·들·힘·내!

지난 9월 9일 '세계 자살예방의 날' 하루 전, '제2회 생명존중 콘서트'가 송도 트라이볼 야외 특설무대에서 열렸다. '세계자살예방의 날'을 맞이하여 생명의 소중함을 중심 가치로 생각하는 인하대병원은 지난 2016년에 이어 두 번째로 콘서트를 개최한 것이다. 각계각층 인사들과 인천 시민 등이 참여하여 뜻을 함께하는 소중한 자리였다.

### 희망의 노래로 생명 살리는 가수 김재희와 잡은 '끈'

희망의 노래를 불러 생명을 살리고자 하는 가수 김재희의 마음을 담은 노래 '함께 가는 길'이 또 한 번 송도 트라이볼 무대를 간절하게 적신다. 동영상 메시지와 함께 울림을 주며 감동과 전율의 '제2회 생명존중 콘서트'는 그렇게 막을 내렸다.



▲ 생명존중 콘서트를 빛내주는 관람객 여러분



▲ 봉사로 생명존중의 뜻을 함께한 사람들





9월 둘째 주 토요일, 화창한 날씨 속에 우리 방사선 종양학과 과원들은 대부도로 아우회를 다녀왔습니다. 그동안의 가을 아우회는 과원들의 단합과 화합을 다지고 업무로 인해 쌓인 피로를 회복하기 위한 목적으로 등산을 다녀왔지만, '올해는 다른 이들에게 따뜻한 손길을 내밀어보는 의미 있는 아우회를 다녀와 보자.'라는 생각으로 대부도에 있는 포도농원에서 봉사활동을 하고 왔습니다.

글. 문재희 / 방사선종양학과 방사선사

큰 언덕.. 그곳에서



보랏빛 희망을 일궈내고 오다



가벼운 마음으로 온 봉사, 더 열심히 해야겠다는 책임감으로...

대부도는 늦여름부터 가을철까지 당도가 높은 포도를 파는 노년 상점들이 즐비해 있는 도로가를 관광명소로 삼고 있을 정도로 포도가 유명하고 대부도 곳곳에 많은 포도농원이 있는데, 이번에 저희 방사선 종양학과에서 다녀온 포도농원은 그중에서도 자원봉사 센터에서 운영하는 곳이었습니다. 이곳에서는 일 년 동안 직접 가꾸고 수확한 포도를 판매하여 발생한 수익금 전액을 청소년들의 부족한 열악한 교육환경을 해결하기 위해 운영되고 있었고, 이를 위해 대부도 지역 주민들이 봉사하고 있었습니다. 이런 배경을 알게 되니 가벼운 마음으로 왔던 봉사가 괜히 책임감이 생기고 노력이 헛되지 않도록 더 열심히 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해가 중천에 떠있을 무렵, 저희 과원들은 포도 나무에서 포도송이를 직접 따고 이를 운반하는 작업과 포도의 상품 가치를 높이기 위해 질이 떨어지는 포도는 골라내고 빛바랜 알맹이를 가지 쳐내는 작업, 걸려져 나온 포도 중에 포도즙을 짜기 위해 상태가 아주 좋은 것들만 한 번 더 골라내는 작업 등 과원들 모두가 곳곳에 투입되어 포도 수확을 위한 전반적인 작업을 했습니다.



함께 맘 흘리며 값진 시간을 갖다

모든 작업을 어찌나 간간하게 하시던지... 정말 최상급의 포도만 걸러내서 한 송이 한 송이 정성스레 담아서 한 박스를 만들어 내시는데, 그 분들의 정성과 노고를 옆에서 보고 또 직접 작업해 보고 나니 이 포도 한 박스를 단 돈 몇 만원에 사갈 수 있다는 것이 굉장히 감사한 일이라는 것을 새삼 깨닫게 되었습니다.

또한 평소에 방사선사로서 병원에서 근무하다 보면 각자 맡은 분야에서의 업무를 해야 하기 때문에, 과장님과 간호사 선생님들 그리고 의학 물리사 선생님들과 많은 대화를 나눌 시간적 여유가 없었는데, 함께 맘 흘리며 봉사하게 되니 업무 외적인 대화를 나눌 수 있어 서로에 대해 알아가고 더 가까워 질 수 있는 좋은 계기가 되었던 것 같아 굉장히 값진 시간이었습니다.

봉사를 마치고 돌아갈 무렵이 되자 아쉬워하시면서 포도의 일손이 많이 필요하니 많은 이들이 찾아와 주셨으면 좋겠다는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이번 가을 대부도에 찾아가 의미 있는 봉사와 함께 힐링도 하는 기회를 가져 보시는 건 어떨까요?



INHA happy plus





## 편두통 치료제 적응증에 맞는 약물 복용



**Q** 편두통이 있어 처방을 받았는데, 설명서를 읽어보니 편두통과 상관이 없는 약을 처방받았습니다. 이유가 뭔가요?

**A** The American Academy of Neurology Guideline에 따르면 편두통 예방 약물로는  $\beta$ 차단제(propranolol, timolol), 항우울제( amitriptyline), 항경련제(divalproex, valproate, topiramate) 등이 있습니다. 이러한 편두통 예방 약물의 경우, 급성치료에도 불구하고 심각한 장애를 초래하는 재발성 편두통 환자 또는 간헐적으로 나타나는 환자에게 고려되며, 효과가 나타날 때까지 2~3개월이 걸릴 수 있으므로 조기에 중단하지 않아야 합니다.

**Q** 편두통 치료 약물의 종류에 대해 알려주세요

**A** 가벼운 편두통인 경우나 과거에 약물로 효과를 본 적이 있는 경우, NSAIDs, acetaminophen 등의 일반 의약품을 약국에서 구입하여 복용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진통제에 반응하지 않는 편두통의 경우 아래 약제들을 처방받아 사용합니다.

1. Triptan 계열 약물(ImigranOR, MigardOR, NaramigOR, ZomigOR) : Triptan 계열 약물은 편두통의 1차 치료제로, 편두통 발생 후 복용하는 약이며, 예방 목적으로 복용하지 않습니다. 이 약은 혈관을 직접 수축시켜 편두통 완화 효과를 나타내어, 허혈성 심장질환, 관상동맥질환, 기타 심장질환, 조절되지 않는 고혈압 환자 등의 경우 약물 복용을 통해 협심증이나 관상동맥질환 등이 유발될 수 있으므로 미리 의사에게 알려야 합니다.

2. Ergotamine 계열 약물(CramingOR) : 19세기부터 편두통 치료제로 사용되어온 약으로, 국내에는 카페인과의 복합제가 사용되고 있습니다. 혈관수축 작용과 평활근 이완 작용이 있으므로 말초혈관질환, 관동맥질환, 신장 또는 간기능 이상, 임신, 조절되지 않는 고혈압 환자에게 사용하지 않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Q** 편두통약을 복용 시 주의해야 할 점은 어떤 것이 있나요?

**A** 편두통 예방 약물에는 치료 효과가 없고 치료 약물에는 예방 효과가 없기 때문에 이 약물을 서로 혼용하여 복용해서는 안 됩니다. 또한, 일부 치료 약물을 예방 목적으로 복용하는 경우, 편두통 증상을 더욱 악화시킬 수 있으므로 반드시 적응증에 맞는 약물을 복용해야 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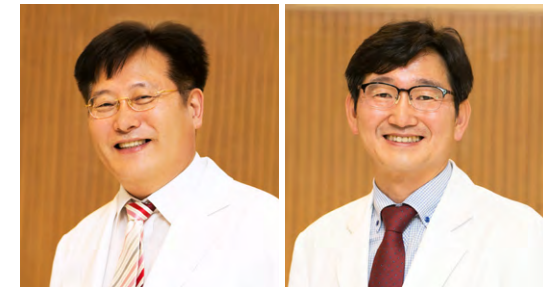
편두통 치료 약물은 복용이 지연될 경우 약효가 나타나지 않을 수 있으므로, 증상 발현 시 빠른 시간 안에 약물을 복용해야 합니다. 또한, triptan 계열 약물과 ergotamine 계열 약품의 병용투여는 지속적인 혈관경련반응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24시간 이내에 병용투여 하지 않습니다.

Ref, Pharmacotherapy a Pathophysiologic Approach (9th)

♣ 항상 환자분들 곁에 인하대병원 약사들이 함께합니다.  
♣ 약에 대한 문의는 : 주간 032) 890-3327 | 야간 032) 890-3315



## 지역사회와 함께하고 건강한 생활과 행복을 주는 희망의 내일을 꿈꾸는 곳



전현양 병원장(정형외과) | 구지희 병원장(외과)

요양병원은 단순히 형식적인 치료에만 그치는 것이 아니라 의료와 복지, 지역사회가 함께해야 하는데 의기투합 한 전현양(정형외과)·구지희(외과), 두 병원장은 지난 7월 희망을 꿈꾸는 '세인트요양병원'을 개원했다.

### SAINT GERIATRICS HOSPITAL



#### 맞춤진료를 제공하여 환자의 치료와 재활에 힘쓰다

3층부터 10층까지 전 층을 병원으로 사용하고 있는 세인트요양병원은 층마다 환자의 특성에 맞는 전문 돌봄은 물론 맞춤 진료에 따른 치료와 재활에 힘쓰고 있다.

우리나라는 급속하게 고령화 사회에 접어들어 요양병원이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고 있지만, 환자와 보호자가 요구하는 사항이나 만족도를 충족시키는 의료시설은 부족한 실정이다.

“이제 요양병원은 단순히 형식적인 치료에만 그쳐서는 안 됩니다. 환자의 인간다운 삶을 위해 전문적 의료서비스가 필요하고 가정의 책임을 넘어 사회가 함께 고민해야 한다고 봐요.”

고령화 사회의 노인 돌봄 문제에 대해 생각이 많은 전현양 병원장이다. 그래서 노후 시간을 보낼 중요한 새로운 거주지 개념에서 희망을 꿈꿀 수 있는 곳이어야 한다는 것이 개원 모토라고 전한다.

#### 재활전문병원과 비슷한 정도의 규모와 시설

9층의 재활치료 시설은 재활전문병원 정도의 규모와 시설을 갖추고 있으며, 쾌적한 환경에서 전문 케어를 받을 수 있다. 입원환자의 신체적인 불편함과 장애를 최소화하기 위해 재활의학전문의, 물리치료사, 작업치료사 등 젊은 의료진으로 구성되어 재활치료가 이루어지고 있다.

또, 증상과 상태에 중점을 두고, 적극적인 재활치료를 통한 환자의 일상복귀에 힘쓰고 있으며 환자에게는 심리적인 안정감을, 가족에게는 안도감을 주기 위해 모든 직원이 한마음으로 호흡을 맞춘다.

빠른 쾌유를 돕는 쾌적한 환경, 의료진의 세심한 모니터링을 통한 최적의 의료서비스, 환자 경·중도에 따른 전문 케어로 환자에게 필요한 생활서비스를 제공하며 가족같이 돌본다는 마음으로 오늘도 최선을 다한다.

#### 시각장애 경보등과 같은 소방장비 및 안전시설 구축

몇 년간 대두되고 있는 소방과 관련한 모든 시설은 개원 당시부터 신경 썼으며, 요양병원에 적합하도록 스포프클러를 설치하고 더 나아가 시각장애 경보등과 같은 소방장비와 안전시설을 구축하였다. 건강을 고려한 식단으로 환자에게 적합하고 균형적인 식사를 제공하는 세심함도 빼놓을 수 없다.

‘좋은’ 요양병원이 부족한 지금, 내 가족, 내 부모를 섬기는 마음으로 또 다른 행복을 함께할 수 있는 세인트요양병원의 내일을 꿈꾼다.

| 세인트요양병원 | 인천 남구 아람대로 53 ☎032-870-8700



## 인하대병원, 외국인 환자 우수 유치의료기관에 선정



보건복지부는 외국인 환자 유치의료기관 평가 및 지정 시행에 따라 제1차 지정 의료기관으로 인하대병원을 지정했다.

이번 지정은 '의료 해외 진출 및 외국인 환자 유치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것이다.

외국인 환자 유치의료기관 평가·지정제(이하 평가지정제)는 외국인 환자를 대상으로 우수한 서비스와 안전한 치료 환경을 제공하는 의료기관에 대한 평가와 지정을 통해 한국 의료의 글로벌 경쟁력과 신뢰도를 높이기 위해 마련된 제도이다.

지난 2014년부터 현장 설문과 전문가 의견수렴을 토대로 한국보건산업진흥원과 의료기관평가인증원이 협업해 의료·비의료 서비스 평가기준안을 마련했다. 이어 2015년부터 2016년까지 총 3회의 시범평가를 거쳐 올해 신청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첫 평가를 시행했다.

평가 기준은 다국어 상담, 통역 서비스, 교통, 숙박 연계, 감염관리 등 외국인 환자 특성화 서비스와 환자안전체계를 평가하기 위한 130개 조사항목으로 구성됐다. 복지부는 인하대병원은 다국어 홈페이지 등 정보제공 체계, 주요 언어별 동의서 구비, 종교시설 등 편의 제공 등에서 강점을 보였다고 설명했다.

## 인하대병원, 국내에서 최초로 '입원외과' 도입



인하대병원은 '입원외과를 혁신한다'라는 미션을 달성하기 위해 기존의 내과·외과 입원전담 전문의를 포함한 입원외과를 신설·운영하고 있다.

입원전담전문의 내과 이정환, 외과 박정미, 장웅선, 이정훈 전문의를 비롯해, 기존의 중환자전담 김정수·이만중 전문의, 신속대응팀 전담 박재연·장진희·조희경 간호사를 입원외과에 포함시켰다. 통합집중치료센터장 조재화 교수가 입원외과 과장을 맡았다.

국내에서 처음 선보이는 입원외과는 입원 진료 분야의 전문적인 지식을 가진 '입원 전담전문의, 중환자실 전담전문의, 신속대응팀(INHEART) 등으로 구성하고 있다. 입원환자에게만 집중하여 직접 책임지고 진료하는 새로운 통합 진료체계를 구축하고 있다.

입원외과 내 다학제간 접근이 가능하도록 시스템을 구축하고, 기존 진료과와의 치료 단절이 없도록 유기적 협진 등으로 환자들에게 통합진료를 제공하도록 운영하고 있다.

## 인하대병원, 9월 9일 세계자살예방의 날 기념 '제2회 생명존중 콘서트' 개최



9월 9일(토) 저녁 7시, 인하대병원은 인천 송도 트라이볼 야외무대에서 세계 자살예방의 날(9

월 10일)을 기념하여 생명의 가치를 다시 생각해보는 의미에서 '제2회 생명존중콘서트'를 개최했다.

지난해에 이어 2년 연속 개최하는 이번 행사는 인천광역시청, 인하대병원 생명사랑위기대응센터, 구세군 자선냄비 등이 후원했다.

초청 가수로는 김재희(부활 3~4기 보컬), 박지현(VOS), 배기성(켄), 최호섭, 그리고 전문 MC 박리디아 씨가 사회를 맡았다.

김영모 병원장은 "인하대병원은 보건복지부의 '응급실 기반 자살시도자 사후관리 사업' 수행기관으로서 지역사회 주민들의 건강과 행복을 지키는 사명을 가지고 있다.

세계 자살예방의 날을 맞이하여 생명의 소중함을 중심가치로 생각하여 이번 행사를 개최하게 되었다."라며 "무엇으로도 대체될 수 없는 '생명의 소중함'을 되새기는 작은 축제의 자리 에 많은 관심과 참여 감사드립니다." 라고 소감을 전했다.

## 인하대병원 인천국제공항 제1, 제2 터미널 의료센터 운영 협정체결



인하대병원이 인천국제공항공사와 공항의료센터 운영협정을 체결했다. 이로써 인하대병원은 현재 운영 중인 제1여객터미널 의료센터에 이어 내년 초 오픈 하는 제2터미널 의료센터까지 통합 운영하게 된다.

협정식에는 인천공항공사, 인하대병원과 대한항공 등 유관기관 관계자들이 참석하였다.

본 협정을 통해 인하대병원은 공항 내 항공기 사고 등 비상사태 발생 시 응급환자의 처치 및 후송을 총괄하는 등 의료조정관으로서 상시 응급 대응체계를 구축하게 된다. 또한, 해외여행 전후 병원을 찾는 여객과 제2터미널 개항 후 5만여 명에 이르는 상주 직원을 대상으로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게 된다.

김영모 병원장은 "인하대병원 공항의료센터를 운영하며 쌓아온 노하우를 바탕으로 국내 최대의 항공전문의 인적 인프라를 보유하고 있다. 앞으로도 여객 및 상주 직원의 건강을 지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 대만 세인트 폴 병원, 인하대병원 방문해 간호간병통합서비스를 비롯한 의료시스템 견학



대만의 세인트 폴 병원(St. Paul's Hospital, 병원장 차아연(Chen Yaliam))의 관계자들이 인하대병원을 방문해 의료시스템을 견학하는 행사를 갖고,

향후 협력관계를 논의했다.

세인트 폴 병원의 차아연 병원장을 비롯해 고위 진료부원장, 여기분 간호부장을 비롯한 총 15명의 관계자가 방문했다.인하대병원이 2013년부터 국내 대학병원 최초로 운영하고 있는 간호간병통합서비스 병동을 비롯해 국제진료센터, 암통합지원센터, 보건복지부 지정 인천권역 권역응급의료센터 등 주요 시설을 견학하였다. 또 인하대병원 간호본부의 간호간병통합서비스 관련 강의를 듣는 시간을 갖는 등 전반적 의료시스템을 경험해보는 기회를 가졌다.

## 인천시 '취약계층 아동의 건강한 사회인 육성을 위한' 의료지원 협약



인천광역시와 인하대병원은 '취약계층 아동의 건강한 사회인 육성을 위한' 의료지원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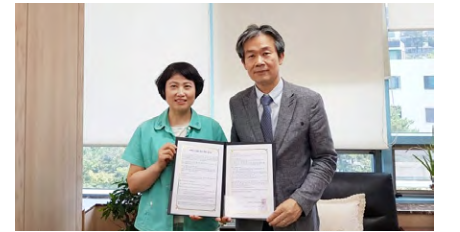
'취약계층 아동의 건강한 사회인 육성을 위한' 의료지원 사업은 인천광역시가 진행하는 '공감복지'의 실현을 위해 아동 친화적 지역사회를 조성하는 프로젝트라 의료 사각지대에 있는 관내 아동들에게 필요한 의료를 지원하고 궁극적으로 건강한 사회인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뒷받침하고자 하는 사업이다.

지원 대상이 되는 관내 아동은 작년 2월 12일(금), 인천시와 인하대병원이 체결한 '보호대상 아동의 건강한 사회인 육성사업' 치료 분야 지원 업무협약에서 선정한 관내 보호시설 아동과 더불어 한 부모가정 아동을 포함한다.

김영모 병원장은 "기형이나 사시, 미용 등의 문체도 아동들이 훌륭한 사회인으로 성장하는 데 심리적 장애가 되기 때문에 매우 중요한 문제인데, 사회의 관심을 받지 못해 취약 계층 아동들이

사각지대에 있는 실정이다. 인천시의 사업 진행이 기쁘고, 최선을 다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 인하대병원 - 인천 중구보건소, 알레르기 질환 검진 위탁운영 협약



인하대병원 환경보건센터(센터장 임대현, 소아청소년과 교수)는 인천 중구 지역 초등학생의 알레르기 질환 유병률을 파악 질환의 원인을 규명하고자 인천 중구보건소와 8월 29일(화), 알레르기 질환 검진 위탁 운영에 대한 협약을 체결했다.

환경보건센터는 인천 중구보건소에서 운영예산을 지원받아 인천 중구 관내 초등학교 1학년 학생 500여 명을 대상으로 알레르기 질환에 대한 체계적인 설문조사 및 검사를 시행할 계획이다. 검사 결과는 보건교사와 학부모에게 통보하여 고위험군을 조기에 발견하고 치료할 수 있도록 한다. 올해로 3년째인 알레르기질환 검진은 향후 2년간 지속적인 데이터를 수집하여 알레르기 질환 유병률 추세 및 원인을 규명하도록 할 계획이다.

## 인하대병원, 지역 중고생 대상 '하계 나눔학교' 개최로 지역사회 나눔 실천 리더 양성



2017년 8월 9일(수), 인하대병원공공의료 사업지원단은 지난 8월 7일(월)~9일(수)까지 3일간 인천지역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진행한 '하계 나눔학교'의 수료식을 했다.

이번 프로그램에 참가한 인천지역 중고생 30여

명은 병원 직업체험, 주안역 무료급식 봉사, 심폐소생술 교육 등 다양한 활동을 직접 체험하며 미래의 꿈에 대해 생각하고 주변의 소외된 이웃들과 함께할 수 있는 시간을 가졌다.

나눔학교 수료식을 마친 한 학생은 “인하대병원 하계 나눔학교에 참가해 지역사회의 문화와 나눔 활동에 대해 익히는 계기가 되어 매우 뜻깊은 경험이었고 앞으로도 보다 많은 학생들이 참여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 되었으면 좋겠다.”라며 소감을 밝혔다.

### 인하대병원 환경보건센터, 국립공원관리공단 건강나누리 캠프 성료



인하대병원 환경보건센터(센터장 임대현, 소아청소년과 교수)는 북한산국립공원 도봉사무소와 공동으로 8월 24일과 25일, 1박 2일간 알레르기 질환을 앓고 있는 초등학교 3~6학년 학생 28명을 대상으로 건강나누리 캠프를 진행했다.

이날 캠프에는 북한산 국립공원도봉사무소, 국립생물자원관 등 자연 체험 활동 전문가와 의료진 및 환경보건센터 연구진, 전문강사 등이 참여하였다. 프로그램으로는 우리나라 나비 찾기, 나만의 예코백 만들기, 알레르기 질환 강의, 알레르기 질환 검사 체험, 레크리에이션, 북한산 둘레길 탐방 등 다채로운 프로그램이 시행되었다. 올해로 8번째 여는 이번 행사는 전액 무료로 실시되며, 캠프 참여 후 재참여 의사를 묻는 설문에서 참석자 전원이 다시 참여하고 싶다는 의사를 밝힐 정도로 매우 높은 만족도를 보였다.

### 인천 백석고등학교 학생들이 모은 헌혈증, 인하대병원에 희망 전달

2017년 8월 24일(목), 인하대병원은 인천 백석고



등학교(교장 권혁윤, 인천 서구 소재) 학생들이 모은 헌혈증을 전달받았다.

백석고등학교의 청소년 봉사동아리 '향사단'은 교내 헌혈캠페인을 자체적으로 시행하여 모은 헌혈증 250여 장을 인하대병원 암센터에 전달하며, 수혈이 필요한 환자들에게 희망을 선물하는 뜻을 밝혔다. 헌혈증은 인하대병원 암센터에서 치료를 받는 5명의 환자에게 전달되었다.

### 인하대병원 암통합지원센터, '제10회 대장암의 날' 건강공개강좌 개최



인하대병원 암통합지원센터(센터장 최선근)는 9월 12일(화), 병원 본관 지하 2층 강당에서 암환자와 가족 그리고 지역 주민들을 대상으로 대한대장항문학회 주관 '제10회 대장암의 날 건강공개강좌'를 실시했다.

지역사회 대장암 예방과 치료를 위해 개최된 이번 행사에서는 ▲ 대장암의 예방과 진단(소화기내과 방병욱 교수) ▲ 대장암과 운동(암통합지원센터 최선근 센터장) ▲ 대장암 환자를 위한 운동법 (재활의학과 최지원 재활치료사) 세션으로 구성되어 큰 반응을 얻었다.

인하대병원 암통합지원센터 최선근 센터장(외과)은 “인하대병원은 지역사회 암치료를 중심병원으로, 단순한 암 치료뿐만 아니라 환자 중심 일대일 원스톱 서비스를 통해 환자와 가족들의 걱정을 덜어드리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

라며 “오늘의 행사를 비롯해 환자와 가족들의 마음을 어루만지기 위해 앞으로도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 새 옷, 새 마음으로 환자에게 다가가는 인하대병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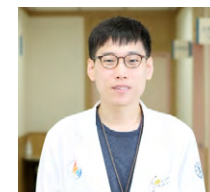


인하대병원은 최근 간호사들의 유니폼을 변경하고 휴게공간 리모델링을 진행했다. 환자에게 편안한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다각적인 시도를 하고 있다.

인하대병원 간호간병통합서비스 병동 간호사들은 기존 노란색 유니폼에서 분홍, 파랑, 보라, 감색 네 가지 색상의 유니폼을 선택하여 개성을 살릴 수 있게 했다.

바뀐 유니폼은 기존보다 신축성, 활동성, 제습성 등 기능성을 보강한 '편의복'으로, 간호사들의 만족도를 높였다. 간호간병통합서비스를 운영하는 인하대병원 간호사들의 업무 효율성을 증진시키는 데 큰 기여를 하고 있다는 후문이다.

### 혈액종양내과 임주한 교수, 세계 3대 인명사전 '마르퀴즈 후즈 후' 등재



## 연론에 비친 인하대병원

2017. 7. 1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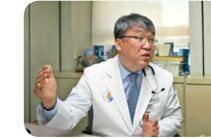
출연: 외과 허민희 교수  
언론사: 동아일보  
주제: 유방암

2017. 7. 15



출연: 혈액종양내과 이문희 교수  
언론사: 중구소식지  
주제: 유방암의 관리와 예방

2017. 7. 16



출연: 직업환경의학과 임중환 교수  
언론사: 국민일보  
주제: [의사의 길을 묻다] 임중환 교수

2017. 7. 1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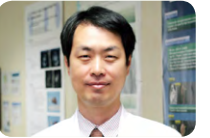
출연: 심장내과 백용수 교수  
프로그램: 경향신문  
주제: 바깥소식 '각종 질환' 주의보

2017. 7. 25



출연: 응급의학과 백진희 교수  
프로그램: 인천교통방송 (정보세상 인천)  
주제: 여름철 폭염에 대비한 건강관리

2017. 7. 25



출연: 흉부외과 김영삼 교수  
언론사: 기호일보  
주제: 폐암

2017. 7. 27



출연: 신경외과 심유식 교수  
언론사: 중부일보  
주제: 뇌동맥류

2017. 8. 2



출연: 심장내과 우성일 교수  
언론사: 경기일보  
주제: 급성심근경색

2017. 8. 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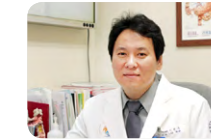
출연: 응급의학과 백진희 교수  
프로그램: 티브로드 뉴스  
주제: 일사병

2017. 8. 11



출연: 피부과 변지원 교수  
프로그램: KBS (여유 만만)  
주제: 여름철 피부 가꾸기

2017. 8. 14



출연: 소화기내과 이진우 교수  
언론사: 경향신문  
주제: 지방간

2017. 8. 15



출연: 피부과 신정현 교수  
프로그램: 인천교통방송 (정보세상 인천)  
주제: 무좀

## 건강교실 안내

건강교실명	내용	개최일시	개최장소	문의전화
유방암 환자 교육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유방암 환자의 식이</li> <li>유방암 수술 후 관리 및 림프부종 관리</li> <li>유방암 환우들이 받을 수 있는 사회복지 지원</li> <li>유방전문의와의 상담 및 환우들과의 대화 - 대상: 유방암 환우 및 가족(유선신청 바랍니다)</li> </ul>	10월 10일(화), 11월 08일(수) 오후 2시 ~ 4시 30분	3층 예방센터 회의실	유방·갑상선외과센터 032-890-2560~1
대장암 환자 교육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대장암의 이해</li> <li>대장암 환자의 영양 - 교육을 희망하는 분은 암통합지원센터로 사전 신청 바랍니다.</li> </ul>	11월 21일(화) (홀수달 넷째 주 화요일)	지하 2층 세미나 2실	암통합지원센터 032-890-3600, 3767, 3768
암 환자 음악 요법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암 환자를 위한 음악요법(우쿨렐레 배우기)</li> <li>희망하시는 분은 암통합지원센터로 문의 바랍니다.</li> </ul>	매주 수요일 오전 10시	장소 미정	
심뇌혈관질환과 재활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당뇨환자의 운동요법 등</li> <li>심뇌재활센터 김창환 교수</li> </ul>	10월 11일(수) 15:00~16:00	중구보건소	
심뇌혈관질환의 예방 및 관리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심근경색, 협심증 등</li> <li>심뇌재활센터 좌경림 교수</li> </ul>	10월 17일(화) 14:00~15:00	연수구보건소	예방관리센터 032-890-2142
당뇨예방 및 영양관리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당뇨환자의 영양관리법 등</li> <li>심뇌혈관질환센터 교육전문 전하나 영양사</li> </ul>	10월 18일(수) 15:00~16:00	중구보건소	
심뇌혈관질환의 응급처치 (심폐소생술)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심폐소생술 요령 및 실습</li> <li>심뇌혈관질환센터 교육전문 배시은 간호사</li> </ul>	10월 24일(화) 10:00~11:00	강화군보건소	





대한민국 최초  
국제의료기관평가(JCI)  
의료원 전 부문 3회연속 인증획득



인천지역 최초  
보건복지부 의료기관평가  
재인증 획득

구분	진료과	교수명	세부전공분야	진료요일		비고	구분	진료과	교수명	세부전공분야	진료요일		비고	
				오전	오후						오전	오후		
위암	소화기내과 (소화기센터)	신용운	* 위암, 대장암, 위·대장질환	월, 수, 목	목	*08:30~09:30	갑상선암	내분비내과	남문석	갑상선, 당뇨병, 뇌하수체	월, 화, 목	화	암 다학제 통합진료: 화, 수요일 오후	
		김형길	* 위암, 대장암, 소화기질환, 대장질환	수, 금	월, 수	서비스진료			홍성민	갑상선, 내분비, 골다공증, 당뇨병	목, 금	월, 수		
		관계숙	* 위암, 대장암, 소화기질환, 변비클리닉	수, 금	화				김소현	갑상선, 당뇨병, 내분비, 비만	월, 수, 금	화		
	외과	방병욱	* 위암, 대장암, 염증성 장질환	월, 화	금	암 다학제 통합진료: 목요일 오후		외과	김세중	* 내분비외과(갑상선암), 유방	수, 금	월, 수*	*13:30~15:30 서비스진료	
		신석환	위암, 소화기외과	월, 목	월				허민희	유방외과, 갑상선 내분비외과	월, 화, 목	목*		
		허윤석	위암, 소화성 궤양	화, 목	화, 금				박신영	내분비외과, 유방	월, 화, 목	화, 금		
종양내과 방사선종양학과	이문희	* 혈액학, 종양학	수, 목	월, 목		이비인후과	최정석	* 무통증편도수술, 사이버나이프, 갑상선, 두경부종양, 후두 및 음성, 침샘 및 구강질환	월, 화, 목					
	김우철	* 방사선종양학	월, 수, 목	월 (화*)	목 (수*)		핵의학과 방사선종양학과	현인영	갑상선, 동위원소 치료	월, 수, 목	월 (수*)	목 (금*)		
	김현정	* 방사선종양학	월, 수, 목	월 (수*)	목 (금*)			김한정	방사선종양학	월, 수, 목	월 (수*)	목 (금*)		
대장암	소화기내과 (소화기센터)	신용운	* 대장암, 위암, 위·대장질환	월, 수, 목	목	*08:30~09:30		유방암	외과	김세중	* 유방, 내분비외과	수, 목	월, 수*	*13:30~15:30 서비스진료 암 다학제 통합진료: 화, 수요일 오후
		김형길	* 대장암, 위암, 소화기질환·대장질환	수, 금	월, 수	서비스진료	김우철			* 방사선종양학	월, 수, 목	월 (수*)	목 (금*)	
		관계숙	* 대장암, 위암, 소화기질환, 변비클리닉	수, 금	화		김우철			* 방사선종양학	월, 수, 목	월 (수*)	목 (금*)	
	외과	방병욱	* 위암, 대장암, 염증성 장질환	월, 화	금	암 다학제 통합진료: 목요일 오후	종양내과 방사선종양학과		이문희	* 혈액학, 종양학	수, 목	월, 목		
		최선근	* 대장암(결장암, 직장암, 항문암), 소화기외과, 대장항문	월, 목, 금					김한정	방사선종양학	월, 수, 목	월 (수*)	목 (금*)	
		이문희	* 혈액학, 종양학	수, 목	월, 목				김우철	* 방사선종양학	월, 수, 목	월 (수*)	목 (금*)	
방사선종양학과	김우철	* 방사선종양학	월, 수, 목	월 (화*)	목 (수*)	부인암	산부인과	이병익	종양학, 불임, 폐경기	수, 목, 금	월			
	김현정	* 방사선종양학	월, 수, 목	월 (수*)	목 (금*)			송은성	부인과종양	월, 수	수, 금			
	간암	소화기내과 (소화기센터)	이진우	* 간암클리닉, 간염, 간경변	화, 수, 목			목 (수)	◆간암클리닉	종양내과	황성욱	* 종양학, 복강경	월, 화	화, 목
진영주			* 간암, 만성간염, 알코올성간질환, 지방간	월	화, 수, 금		이문희	* 혈액학, 종양학	수, 목		월, 목			
안승익			췌장암, 담도암, 간담체외과, 이식외과	화, 목	화	암 다학제 통합진료: 금요일 오후	조진현	혈액학, 종양학, 골수이식	월, 수		수, 목			
외과		이건영	* 간담도외과, 이식외과	금	수		방사선종양학과	김우철	* 방사선종양학	월, 수, 목	월 (수*)	목 (금*)		
		신우영	해외연수(2017, 3.1~2018, 2.28)					김우철	* 방사선종양학	월, 수, 목	월 (화*)	목 (수*)		
		김우철	* 방사선종양학	월, 수, 목	월 (수*)	목 (금*)		비뇨기암	비뇨기과	박원희	종양, 전립선질환, 요실금	화, 목		
김현정	* 방사선종양학	월, 수, 목	월 (수*)	목 (금*)	윤상민	종양, 결석, 신이식	월			월, 목				
김현정	* 방사선종양학	월, 수, 목	월 (수*)	목 (금*)	이택	전립선, 종양, 결석	금			화, 목				
체·담도 계암	소화기내과 (소화기센터)	이든행	담도, 췌장질환, 위·대장내시경	화		방사선종양학과	이문희		* 혈액학, 종양학	수, 목	월, 목			
		정 석	* 췌장암, 담도암, 담낭암, 췌장·담도질환, 담석질환, 췌장염	월, 금	화		두경부암		이비인후과	임주한	* 종양학, 혈액학	화, 금	화, 금	암 다학제 통합진료: 목요일 오후
		안승익	췌장암, 담도암, 간담체외과, 이식외과	화, 목	화					종양내과	김우철	* 방사선종양학	월, 수, 목	
이건영	* 간담도외과, 이식외과	금	수		김우철	* 방사선종양학		월, 수, 목			월 (수*)	목 (금*)		
신우영	해외연수(2017, 3.1~2018, 2.28)				김우철	* 방사선종양학	월, 수, 목	월 (수*)	목 (금*)					
폐암	호흡기내과	이홍렬	* 폐종양, 호흡기질환, 만성폐질환	금	수	암 다학제 통합진료: 화요일 오후	중양스트레스 클리닉	정신건강의학과	김원형	스트레스장애, 수면장애, 우울증, 정신병증		(목) (화)	*13:30~15:30 유방·갑상선외과센터 진료	
		곽승민	* 폐종양, 호흡기질환, 만성폐질환	수				임파부종 클리닉	재활의학과	김명옥	척추손상, 언어장애, 발통증, 의지보조기	목	월	
		류정선	* 폐종양, 호흡기질환, 만성폐질환	화, 금	월				피부암	피부과	최광성	피부 양성종양 및 악성종양, 조갑질환, 탈모	월, 화, 금	목
	남해성	폐종양, 폐결절, 폐암 조기검진	수, 금		신정현		피부 양성종양 및 악성종양, 색소질환, 피부미용			수, 금	월 (3,5주), 화	( ): 주별 진료		
	김정수	폐종양, 폐결절, 폐암 조기검진	금		변지원		피부암(악성 종양), 피부양성종양, 피부미용외과, 피부노화, 흉터	목		금				
	흉부외과	윤용한	폐암, 식도암	목	월, 목		종양내과	이문희	* 혈액학, 종양학	수, 목	월, 목			
김영삼		* 폐암, 식도암, 흉선암	(수) (수)	(수) (금)	임주한	* 종양학, 혈액학		화, 금	화, 금					
김우철		* 방사선종양학	월, 수	수, 목	방사선종양학과	김우철		* 방사선종양학	월, 수, 목	월 (화*)	목 (수*)			
흉부 관련암	흉부외과	윤용한	폐암, 식도암	목	월, 목	방사선종양학과	김한정	방사선종양학	월, 수, 목	월 (수*)	목 (금*)			
		김영삼	* 폐암, 식도암, 흉선암	(수) (수)	(수) (금)		뇌종양	신경외과	김은영	* 뇌종양, 뇌신경외과, 안면경련, 3차신경통	월 (▲), 금	수	▲뇌종양, 안면경련, 삼차신경클리닉 *사이버나이프센터	
		김우철	* 방사선종양학	월, 수, 목	월 (화*)			목 (수*)	방사선종양학과	박현선	뇌종양(사이버나이프), 뇌암, 전이성종양, 뇌동맥류, 안면경련, 경동맥협착증, 모야모야병, 뇌혈관기형	월, 화 (수*)		목
김현정	* 방사선종양학	월, 수, 목	월 (수*)	목 (금*)	김우철	* 방사선종양학		월, 수, 목		월 (화*)	목 (수*)			
김현정	* 방사선종양학	월, 수, 목	월 (수*)	목 (금*)	척추종양	신경외과	윤승환	* 척추종양(사이버나이프), 척추, 척수 디스크질환		화, 목	화			
혈액암	혈액내과	조진현	혈액학, 종양학, 골수이식	월, 수		수, 목	방사선종양학과	김우철	* 방사선종양학	월, 수, 목	월 (화*)	목 (수*)		
		김우철	* 방사선종양학	월, 수, 목		월 (화*)		목 (수*)	연부조직 및 골육종	정형외과	강준수	골종양, 인공관절질환, 고관절슬관절, 관절염	월, 수	월
		김현정	* 방사선종양학	월, 수, 목	월 (수*)	목 (금*)		이동주		* 종양, 상지, 수부, 관절염	월, 목, 금			
소아암	소아청소년과 방사선종양학과	김순기	혈액, 종양, 내분비, 비만, 성장	수, 금	월, 화	종양내과	임주한	* 종양학, 혈액학		화, 금	화, 금			
		김우철	* 방사선종양학	월, 수, 목	월 (화*)		목 (수*)	조진현	혈액학, 종양학, 골수이식	월, 수	수, 목			
		김현정	* 방사선종양학	월, 수, 목	월 (수*)		목 (금*)	김우철	* 방사선종양학	월, 수, 목	월 (화*)	목 (수*)		
김현정	* 방사선종양학	월, 수, 목	월 (수*)	목 (금*)	방사선종양학과	김현정	방사선종양학	월, 수, 목	월 (수*)	목 (금*)				

# 인하대병원이 더 가까워졌습니다

남청라 IC → 인하대병원  
(수도권 제2순환고속도로)



## 환자가 가장 안전한 병원

간호·간병 통합서비스 | 국제의료기관(JCI)인증 | 보건복지부 의료기관평가

## 지역사회 건강 지키는 병원

권역응급의료센터 | 권역심뇌혈관질환센터 | 외래전문질환센터

병문안 시간· 횟수 기억하고

# 환자와 나의 건강을 위해 자제해요!

## 전 병동에 스크린도어를 설치하였습니다



병문안 시간 준수



병문안은 조용히



음식물, 꽃 등 반입 금지



단체 병문안 금지



거동 가능 시  
B1 면회라운지 이용



병문안 전후  
손씻기

## 정해진 면회 시간에만 병문안이 가능합니다

병동 각 층 간호 스테이션에서 방문 일지 작성 후 병문안

※ 4인 이상 방문객은 면회 라운지(지하 1층, 신관 3층)를 이용해 주십시오.

## 병문안 가능 시간, 횟수가 바뀌었습니다

구 분		면회가능시간	비 고
일반병실	평일 (1회)	18:00 ~ 20:00	정신건강의학과 병동 : 수, 토, 일, 공휴일 10:00 ~ 20:00 (직계가족 3인까지만 가능)
	주말 (2회)	10:00 ~ 12:00	
		18:00 ~ 20:00	
집중 치료실	내과계 / 심혈관계	12:00 ~ 12:20	1일 2회 20분간, 1회 면회 시 최대 인원수를 5인으로 제한
		19:00 ~ 19:20	
	외과계 / 응급전용 (A·B)	12:40 ~ 13:00	
		19:40 ~ 20:00	
응급의료센터		응급원무과에서 보호자 출입증 수령 후 진료구역 출입 가능 (단, 소생실은 출입 불가)	
신생아 집중치료실	13:00 ~ 13:30		면회객은 부모로 제한
	19:00 ~ 19:30		

- 정해진 면회시간 외에는 출입증을 패용한 보호자 1명만 출입이 가능합니다.
- 면회 인원이 많은 경우, 거동이 가능한 환자는 병실 밖 면회 라운지(지하 1층, 본관 3층)를 이용해 주십시오.